
군산시 경제 분석 보고

- 2020년 1/4분기 -

2020. 6.

세종경영자문(주)

CONTENTS

1부. GRDP 개요와 연구목표

1. GRDP 기초개념 및 활용
2. 연구목표
3. 추정 방법
4. 기존자료와의 비교검토

2부. GRDP 추정 산출물 결과

1. 분석결과
2. GRDP 종합 추이
3. 민간지출 추이
4. 정부지출 추이
5. 투자지출 추이
6. 무역수지 추이

3부. 정책부문별 시사점

1. 일자리 부문
2. 산업혁신 부문
3. 소상공인 활성화 부문
4. 관광 활성화 부문

1부

GRDP 개요와 연구목표

1. 기초개념 및 활용

- GRDP (Gross Regional Domestic Product)는 통상적으로 국가단위 경제지표로 널리 쓰이는 GDP(Gross Domestic Product)의 개념을 그대로 차용하여 시도, 또는 시·군·구 단위의 총생산량을 측정하는 통계자료임
 - GDP의 추계에는 지출계정, 생산계정, 분배계정 등 세 가지의 측정 방법이 존재하며 이론적으로 세 가지 추계방법 각각의 합은 모두 같아야 함 (삼면등가의 법칙)
- 지방자치제의 시행 이후 지역경제에 대한 계획, 정책의 수립 및 사후평가를 위해서는 해당 지역경제에 대한 정확한 통계자료가 필요하나 지자체별 경제변수의 통계작성 체계가 명확히 확립되어 있지 않아 GRDP 등의 지역경제 관련 통계의 정확한 추계가 어려움
- 또한 국가차원에서는 국가균형발전정책, 지역혁신전략 등 주요 국정과제를 올바르게 시행하기 위해서는 자치단체의 GRDP 등의 통계자료를 통한 지역별 경제 상황에 대한 정확한 파악이 선행되어야 함 (강인재 외, 2007)
- 하지만 현재의 기초자치단체(시군구 단위) GRDP는 여러 측면에서 문제점을 안고 있음
 - 기준시점과 공표시점 간의 차이가 약 2년으로 시의성이 떨어져 활용가치가 낮음
 - GRDP 추산에 필요한 기초자치단체 단위의 통계가 충분하지 않으며 일관된 체계에 의한 집계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어 추계의 정확도가 떨어짐

- 생산계정의 측면에서만 작성되고 있어 완결성 및 활용도가 떨어짐
- 앞서 언급하였듯 이론적으로 GDP와 GRDP 모두 지출계정, 생산계정, 분배계정의 결과값이 서로 동일해야 하나 산업구조가 대기업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고 일부 대기업이 특정 산업의 생산량에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러한 기업들이 일부지역에만 불균등하게 분포해 있는 우리나라의 산업 특성상 생산계정 방식의 추계는 정확성이 떨어질 가능성이 높음 (김정완 2006, 임성일 2013, 김을식 외 2015, 김재훈 2017 등)
- 이러한 경우 지출계정 추계방식이 상대적으로 높은 정확도를 보일 수 있음 (예:삼성전자 수원공장의 경우 전기전자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높으며 주요 수원이라는 특정지역에서 많은 생산이 이루어짐으로 생산계정으로 수원의 GRDP를 추계할 경우 과다추정이 될 우려가 상당히 높으나 지출계정으로 추계할 경우 수원 지역의 실제 최종 소비만을 추계함으로 생산계정 추계방식에 비하여 정확성이 높음)

[GDP 및 GRDP 통계작성 현황]

구분	지역내총생산 (GRDP)	국내총생산(GDP)	시군구GRDP
작성기관	통계청	한국은행	광역자치단체 *서울을 제외한 15개 시도
작성범위 및 대상	16개 시도 단위 생산, 지출 및 분배계정	전국 단위 생산, 지출 및 분배계정	시군구단위 생산계정
작성주기	연간	분기 및 연간	연간
공표일정	대상연도 종료 후 +12개월	(분기) 대상분기 종료 후 +28일 (연간) 대상연도 종료 후 +3개월	대상연도 종료 후 24개월
작성방법	지역단위의 연간 기초 자료(조사통계, 행정자료 및 주요기관 결산서 등) 를 이용하여 추계	(분기) 전국단위 월간 분기 기초자료 및 자체 추정자료 를 이용하여 추계 (연간) 분기 추계결과를 합산하여 잠정 추계한 후 연간 기초자료를 이용하여 수정	통계청의 시도 GRDP 확정추계 결과를 관련 배분 지표를 이용하여 시군구단위로 분할

※ 자료출처: 국회입법조사처, 통계청

2. 연구 목표

- 카드사 소비 데이터 등 빅데이터를 이용하여 지출계정 GRDP를 추정함으로써 기존의 생산계정 GRDP의 정확도를 제고
- 시군구 GRDP를 월별로 추계함으로써 즉시성 및 시의성을 제고하여 기초자치단체 단위의 효율적인 경제정책 수립 및 정책영향평가에 기여

- 전국 시군구 단위 지자체의 GRDP 추정에 적용가능한 일반화된 추정모델을 제시함으로써 지자체 간 통계의 일관성을 확보하여 향후 지역 간 경제수준 비교 등의 분석을 가능하게 함

3. 추정 방법

- 시군구 GRDP의 추정방법은 기본적으로 국가 단위의 GDP 추계식을 아래와 같이 그대로 적용함

$$Y(R)_m = C(R)_m + I(R)_m + G(R)_m + NT(R)_m$$

- C(R)은 민간지출 총액, I(R)은 투자지출 총액, G(R)은 각 지방정부지출 총액, NT(R)은 대외순수출입을 각각 의미하며 각 항목을 개별 추계 후 합산하여 GRDP 총액 Y(R)을 도출함

□ 항목별 사용자료 및 출처

[추계 항목별 사용자료 및 출처]

적용항목	데이터 명	작성주기	포함내용	출처
민간지출	BC카드 개인소비 데이터	월	사용자 성별, 나이, 거주지, 소비지역, 금액 등	BC카드
	신용카드 지급결제 통계	월	개인, 법인별일반구매, 할부구매, 현금서비스 이용 실적 등	한국은행 지급결제 통계
	국내총생산에 대한 지출	분기	국내총생산 구성요소별 총액	한국은행 국민계정
기업투자 지출	설비투자계획조사	년	제조업, 비제조업 업종별 설비투자 계획 총액	한국산업은행
	설비투자지수	월	기계류, 운송장비업종 설비투자지수	통계청
	업종별 전력판매량	월	시군구별업종별 전력판매 총량	한국전력
정부지출	지방재정통계	월	시군구지자체별 예산현액, 월별지출액, 누적지출액, 집행률	지방재정 통합공개 시스템
대내외 이출입	시군구별수출입실적	월	시군구별수출입건수 및 수출입금액(달러화)	관세청 수출입무역통계

□ 민간지출 총액 $C(R)$ 추계방법 (BC카드 소비데이터 활용)

- 민간부문 지출을 추계하기 위해서는 지출의 두 종류인 신용카드 소비와 현금성지출, 두 부문을 고려해야함
- 신용카드소비의 경우 BC카드의 시장점유율, 즉 국가전체 신용카드소비에서 BC카드 소비가 차지하는 비중을 고려하여 신용카드소비 총액을 추계함
- 현금성지출의 경우 직접적인 데이터로 추적하기 어려움으로 위의 신용카드소비 총액을 이용하여 국가전체 민간소비의 신용카드소비 대 현금소비 비율을 구하여 이를 위의 신용카드소비 총액에 대입하여 현금성소비까지 고려한 민간부문 총 소비를 추계함

- 위 추계방법은 기본적으로 BC카드소비데이터를 기초로 삼고 있고 BC카드소비데이터는 데이터 내 사용자의 거주지, 사용지가 명시되어 있으므로 별도의 시군구별 분할을 필요로 하지 않음
- 위 BC카드 소비데이터 정보를 바탕으로 거주지와 사용지가 다른 경우, 즉 여행, 또는 타지역으로부터의 재화와 서비스구매까지 추계함으로 지역 간 이출입까지 고려함

□ 기업투자지출 총액 $I(R)$ 추계방법

- 기업투자지출의 경우 추계에 주어진 기본데이터는 한국산업은행의 ‘전국설비투자계획조사’ 임
- 위의 자료를 이용하여 산업별 투자성향과 월별 투자성향, 두 가지 차원에서 데이터 가공을 거침
 - 산업별 투자성향의 경우 전국설비투자계획조사데이터는 산업별 연간 총 투자액 자료만 공개함으로 이를 각 시군구별로 할당하기 위하여 각 시군구의 각 산업이 국가 전체의 해당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구한 후 이 가중치를 반영하여 각 시군구의 산업별 투자추정액을 구하여 각 시군구의 모든 산업의 투자추정액을 합산하여 추계함
 - 설비투자지수에서 해당 연도의 설비투자지수 합계를 구한 후 각 월별 설비투자지수가 해당 연도 총 설비투자지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구하여 이 가중치로 위의 시군구별 연도 투자추정액을 월별로 할당함
- 본 추계방법은 기업의 설비투자가 기업이 속해 있는 산업의 투자경향과 기업의 크기를 고려함. 또한 전반적인 기업의 월별투자성향을 고려하고 있어 투자의 계절성을 반영함

□ 지방정부지출 총액 $G(R)$ 추계방법

- 지방재정통합공개시스템 자료를 이용, 각 시군구별 정부지출 통계를 직접 적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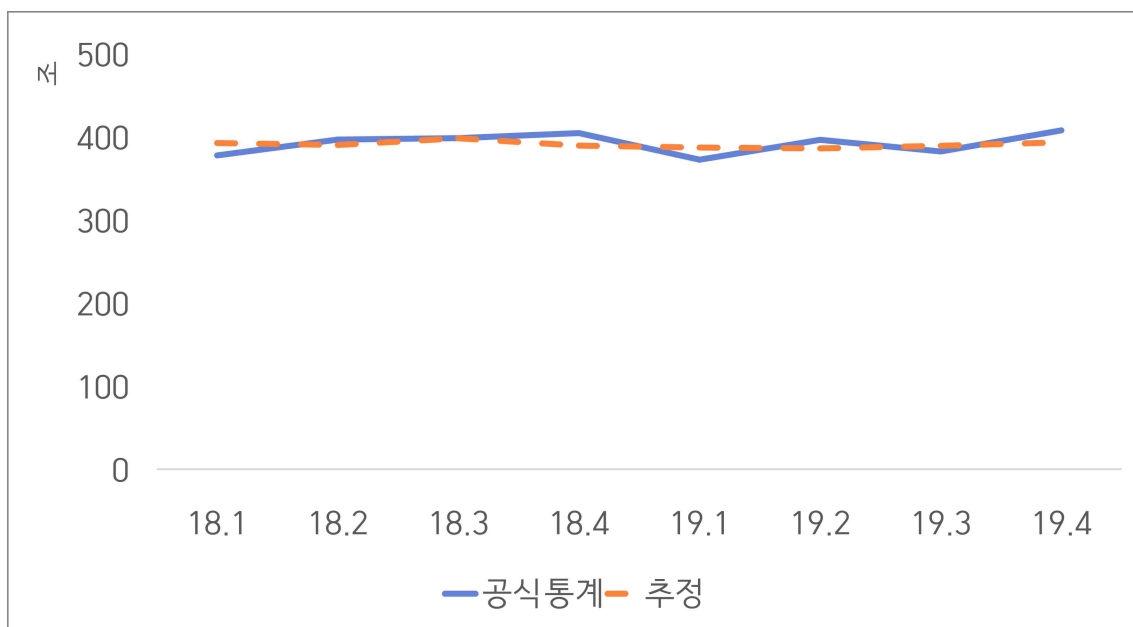
□ 대외순수출 총액 $NT(R)$ 추계방법

- 관세청 수출입 무역통계의 시군구별 자료와 해당 월의 한국은행 월별 평균 환율을 적용하여 추계함

4. 기존자료와의 비교검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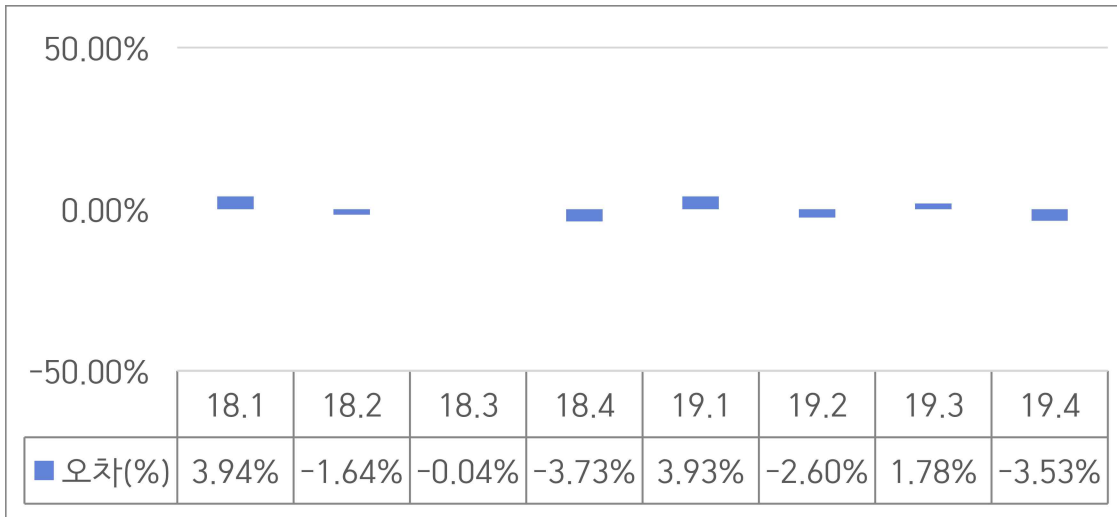
- 앞선 방법론으로 추계된 월별, 시군구별 GRDP 자료의 정확성을 검토하기 위하여 기존 통계청 및 한국은행의 분기별 GDP 공식 통계와 상호비교함

[공식통계 GDP와 추정GRDP 합계 비교]



※ 비교의 편의를 위하여 두 통계 중 GDP의 정부지출 부문과 GRDP의 지방정부 지출 부문을 제외한 민간지출, 투자지출, 순수출입만을 비교함 (정부지출의 경우 GDP는 중앙정부와 광역시도정부 지출을 모두 포함하는 반면 GRDP의 경우 지방정부지출만을 합산함으로 통계 정의상의 차이점이 존재함)

[공식통계와 추정 GRDP 간 분기별 오차]



2부

GRDP 추정 산출물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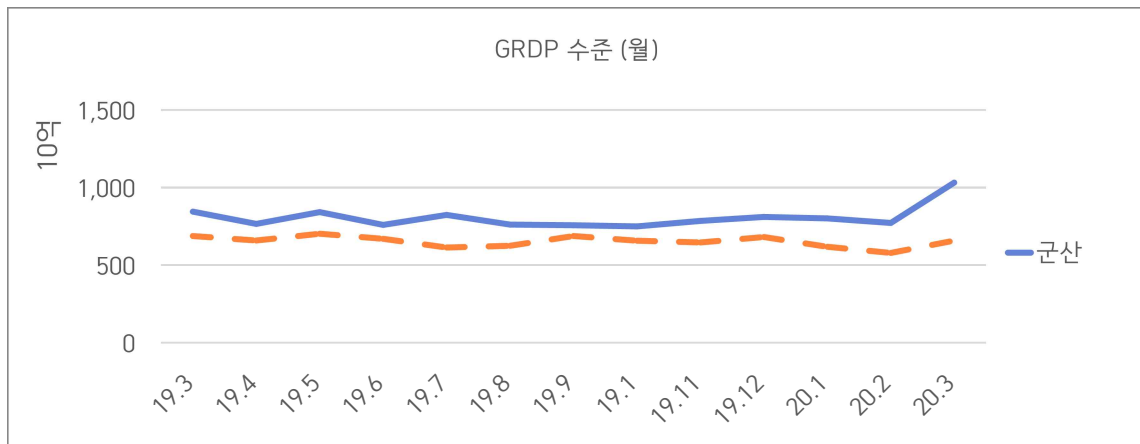
1. 분석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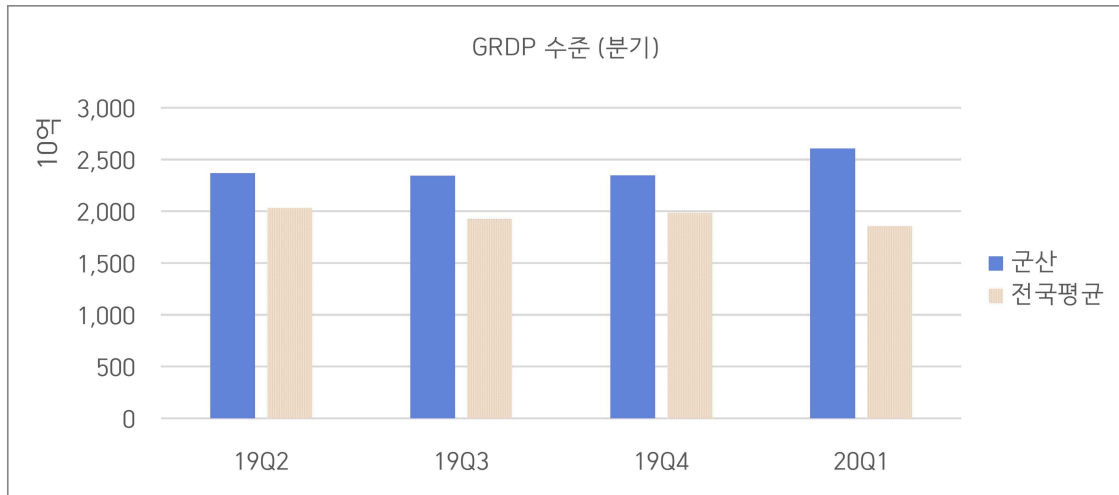
□ 결과 종합

- 군산시의 GRDP는 2019년 2분기부터 2020년 1분기의 기간 동안 각각 2.37조, 2.34조, 2.34조, 2.61조를 기록하여 2019년 전반기 소폭 하락하였으나 2020년 1분기 다시 상승세로 돌아서며 하락분을 넘는 상승폭을 기록함
- 같은 기간 전국 시군구 평균 GRDP는 2.03조, 1.93조, 1.98조, 1.86조를 기록하여 군산시는 동 기간 전국 평균보다 높은 GRDP를 기록한 것으로 추정됨
- 군산시는 추정 대상 기간 중 총 228개 시군구 중 2019년 2분기 50위, 2019 3분기 48위, 2019년 4분기 46위, 2020년 1분기 47위를 기록함

2. GRDP 종합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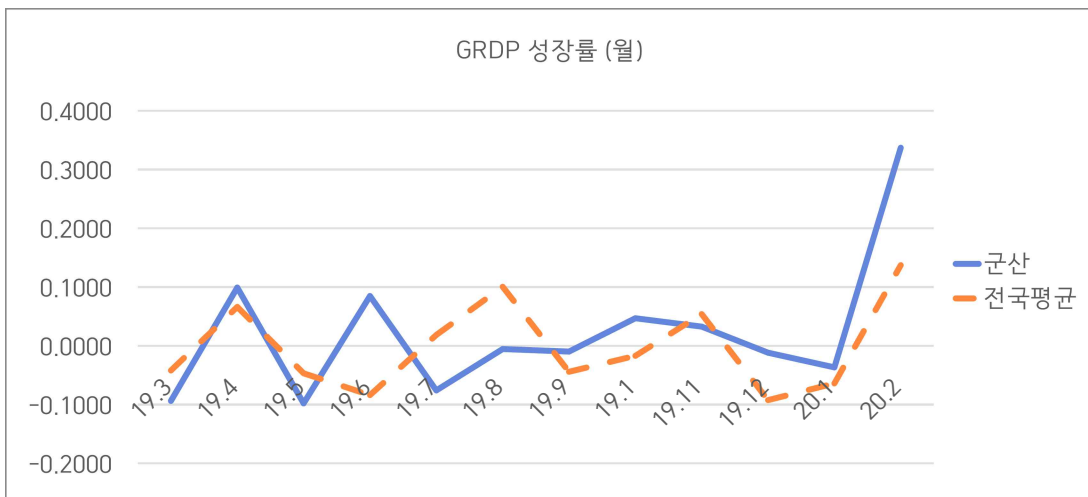
□ 총액 수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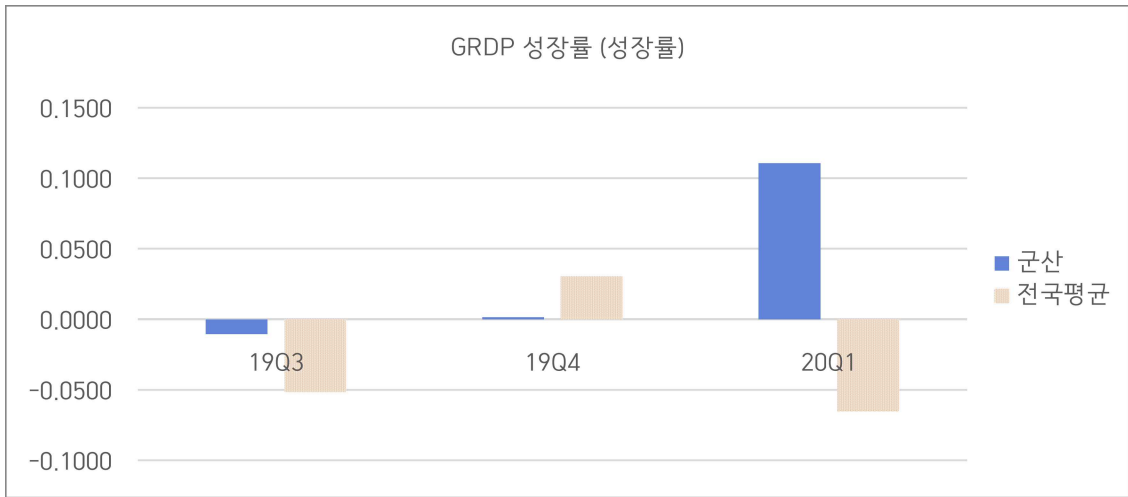


- 군산의 GRDP는 전반적으로 전국 시군구 GRDP와 비교하여 비교적 높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됨
- 또한 2020년 3월 군산의 경우 적극적 재정정책으로 GRDP 상승의 효과를 본 것으로 파악되며 전국평균과의 격차를 더욱 키워가고 있는 것으로 보임

○ 성장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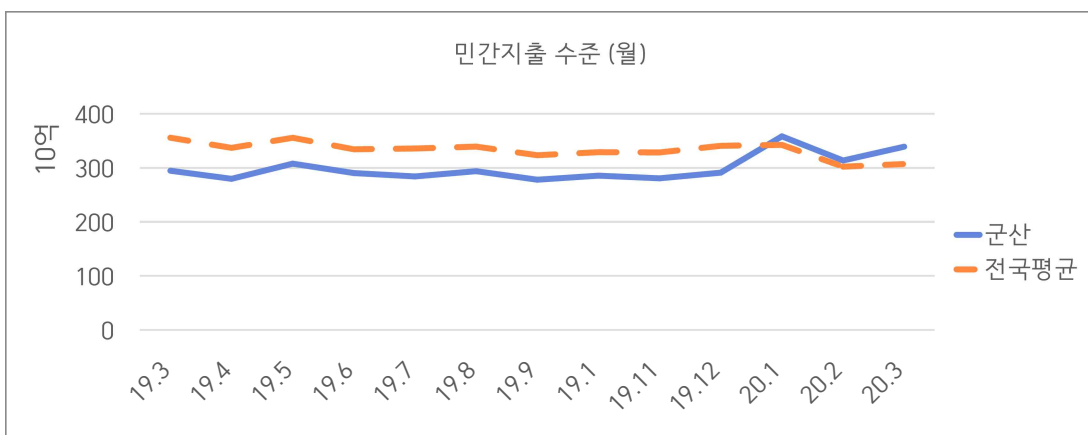
- GRDP 월별 성장률의 측면에서 군산시는 전국평균과 전반적으로 비슷한 흐름을 보였으나 2020년 들어 더욱 가파른 성장률을 보이며 전국평균을 앞서는 것으로 추정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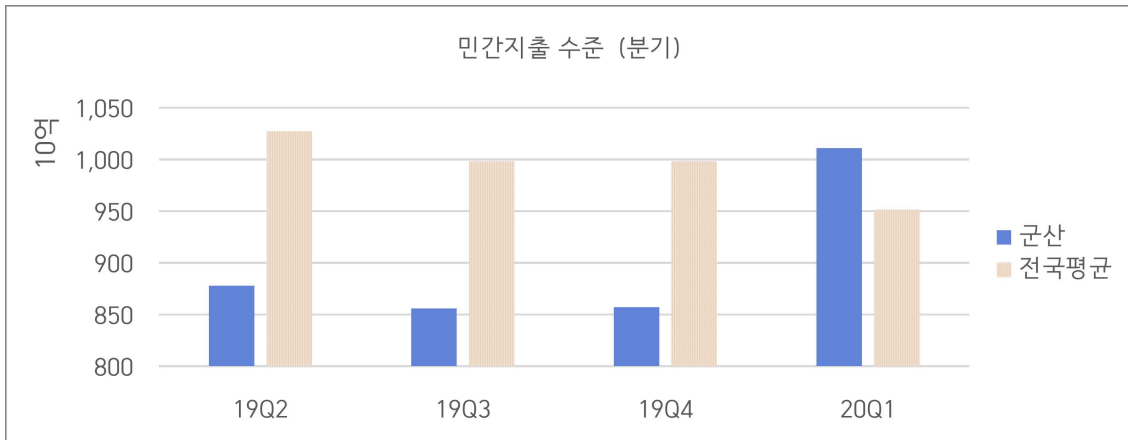
- 분기성장률에서 2020년 1분기 전국평균은 -6.54%로 크게 하락한 반면 군산시의 GRDP 분기성장률은 11.07%로 크게 상승함
- 이는 2020년 1분기 약 3,953억원으로 지난 분기 대비 약 175%의 가파른 상승을 보인 정부지출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추정

3. 민간지출 추이 (군산시, 전국 평균 비교 / 월, 분기)

○ 총액 수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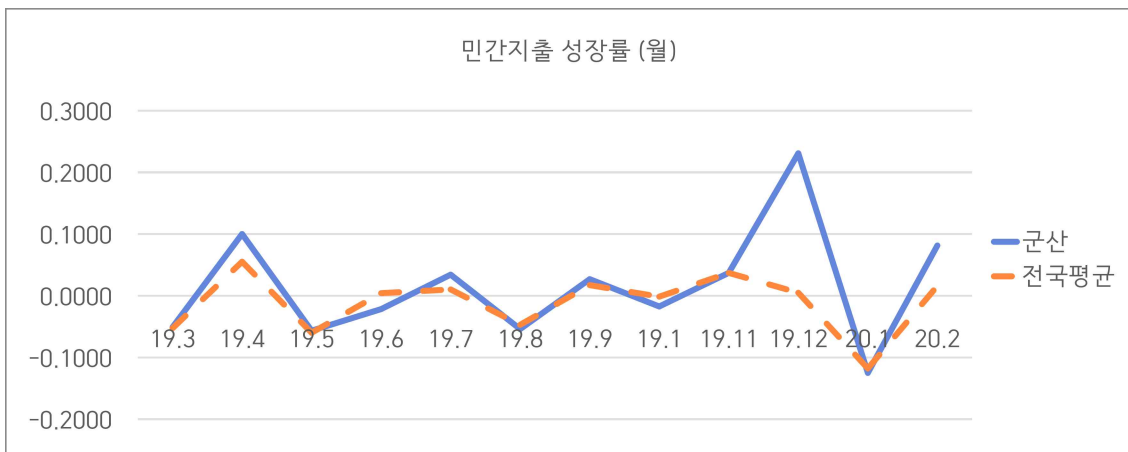


- 군산시의 월별 민간지출 수준은 2019년 3월부터 2019년 12월까지의 기간동안 전국평균을 하회하였으나, 2020년 들어 가파르게 상승하여 2020년 2월에 전국평균을 넘어선 것으로 추정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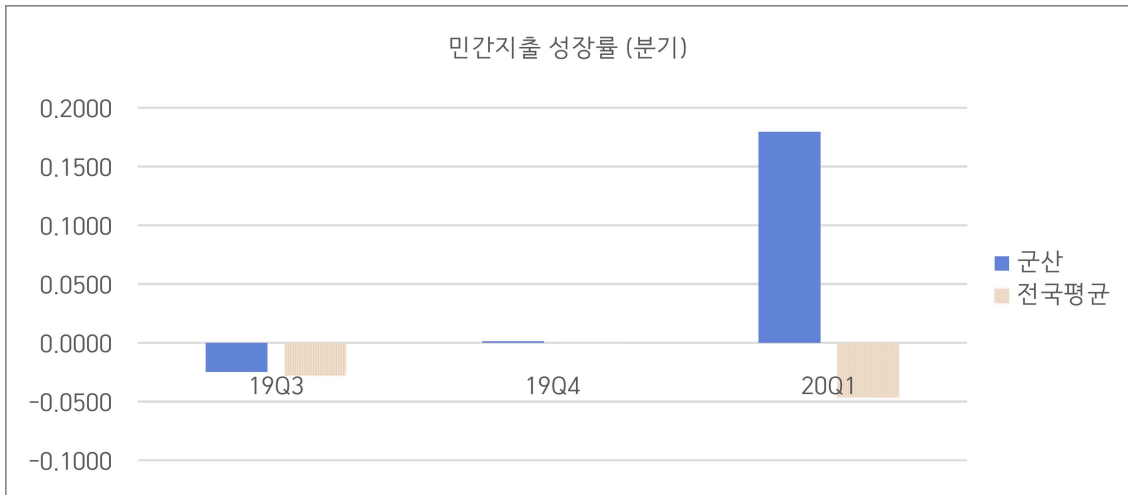


- 이러한 군산시의 민간지출 역전현상은 분기별 자료에서도 더욱 명확히 확인됨
- 2019년 4분기 약 8,500억원 수준이었던 군산시의 분기 민간지출 총액은 2020년 1분기 1조 원을 상회하며 하락추세에 있는 전국평균 민간지출 수준과 대비되는 모습을 보임

○ 성장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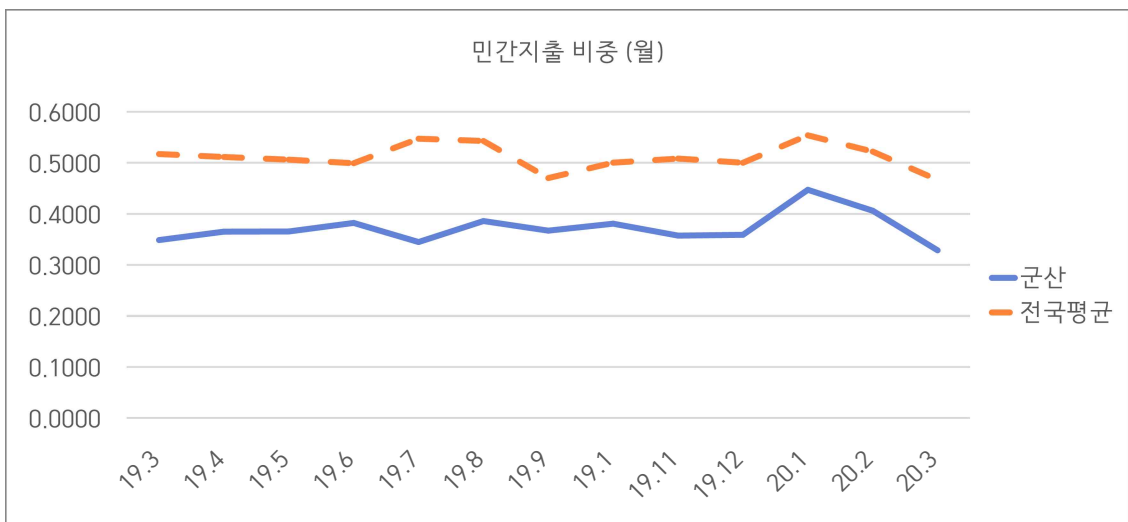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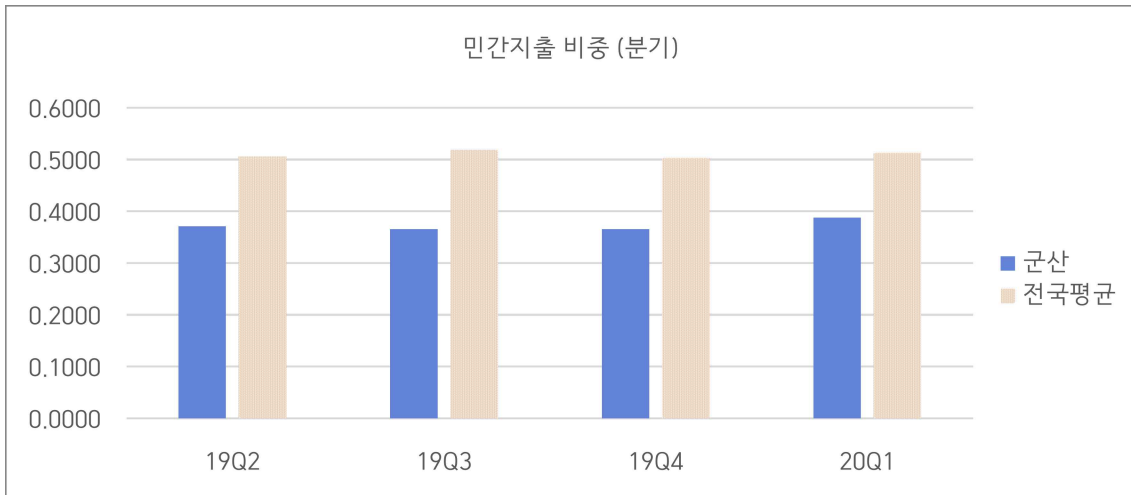
- 월별 민간지출 성장률은 2019년 11월부터 2019년 12월까지의 기간 동안 20% 내외의 가파른 성장을 보였지만 2020년 2월 재차 상승추세로 돌아섬



- 분기별 성장률로 살펴보면 2019년 3분기와 4분기에는 특별한 추세를 보이지 않았으나 2020년 1월 15% 이상의 가파른 상승세를 보임
- 이는 일견 계절성 요인으로 볼 수도 있으나 전국평균의 경우 마이너스 성장률을 보인 것에 비하면 군산시의 민간 소비는 유의미한 성장을 한 것으로 판단됨

○ GRDP 내 비중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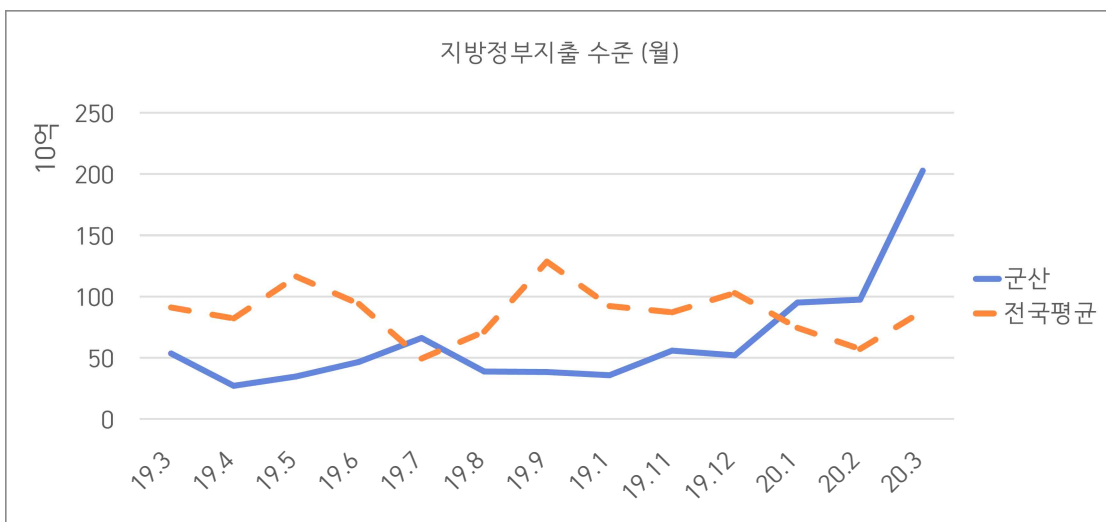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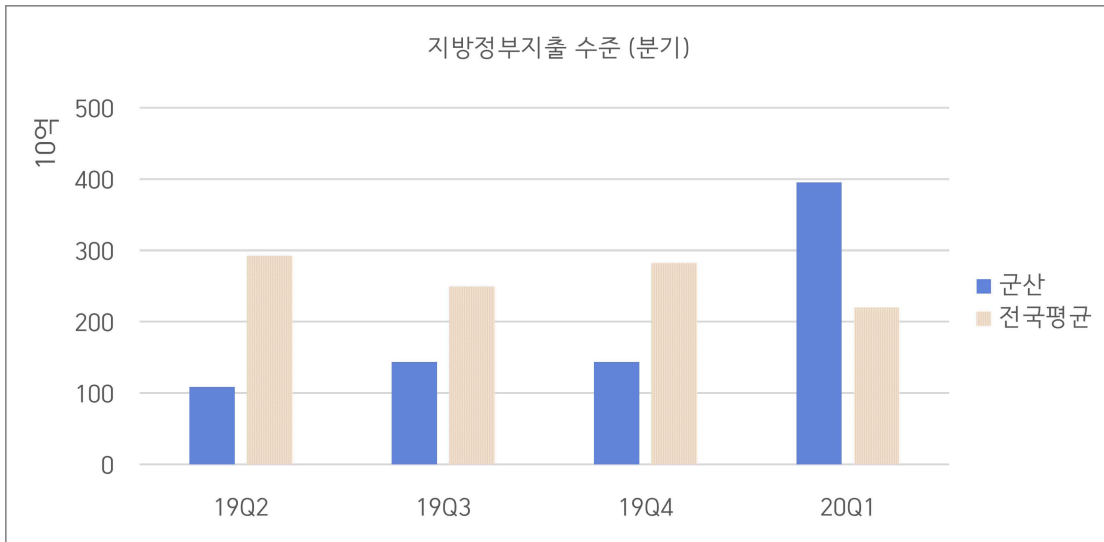


- 민간지출이 GR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군산시와 전국평균 모두 전 기간 큰 변동이 없는 것으로 파악됨
- 전국평균 민간지출 비중의 경우 매월, 매분기 약 50% 정도에서 형성되고 있는 반면, 군산시의 경우는 꾸준히 30% 후반의 비중을 기록하여 전국평균보다는 낮은 수준으로 추정됨

4. 정부지출 추이 (군산시, 전국 평균 비교 / 월, 분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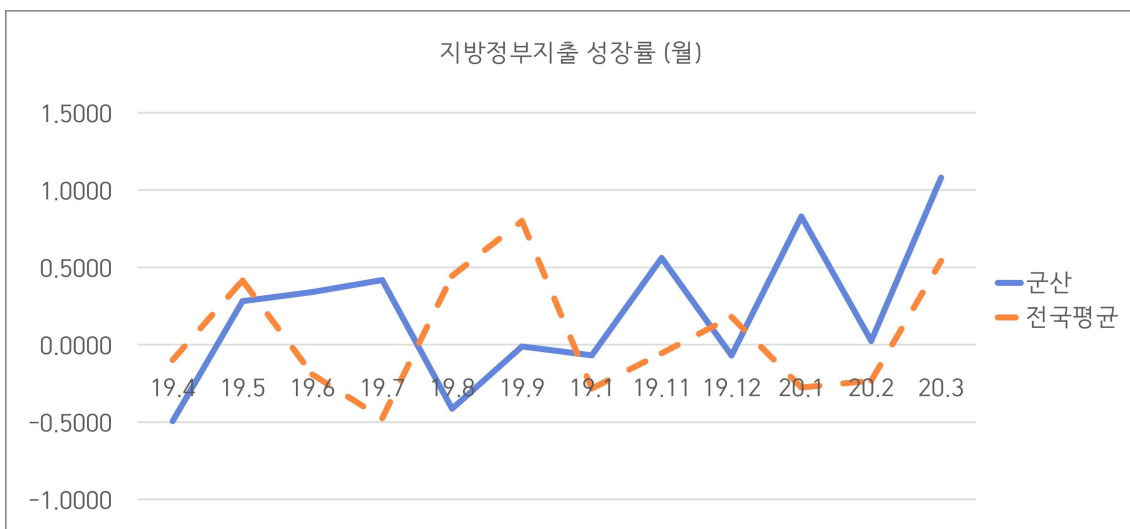
○ 총액 수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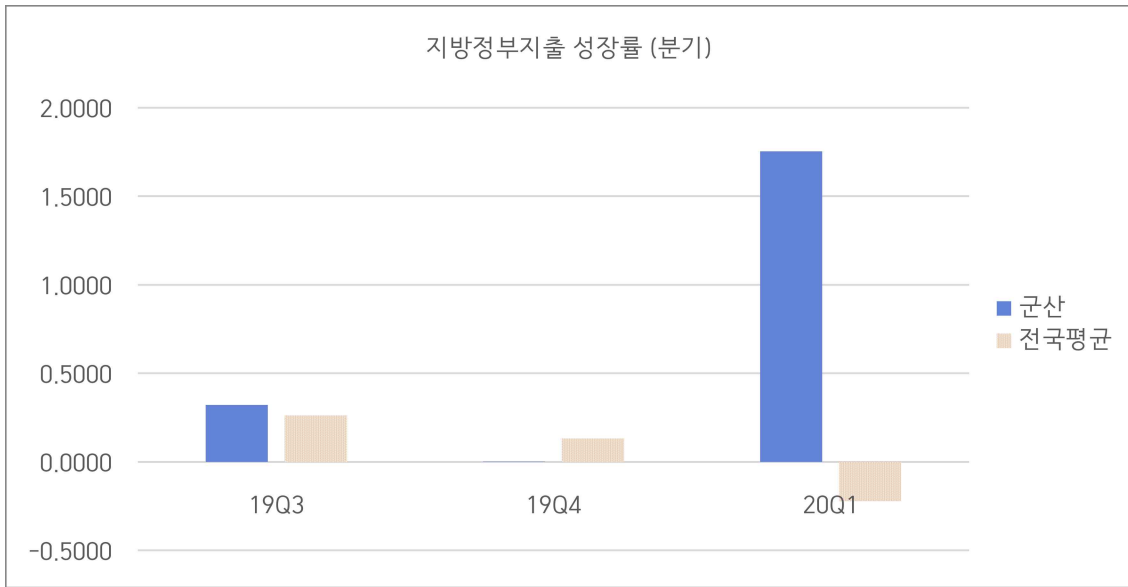




- 정부지출은 GRDP는 시군구 단위의 총생산을 측정하고 있는 만큼 중앙정부와 광역시도 정부의 지출은 포함되지 않음
- 월별 지방정부지출 수준 추이를 살펴보면 2019년 3월부터 지속적으로 전국평균대비 낮은 수준을 보였던 군산시의 지방정부지출이 2020년 들어 크게 증가하고 있음
- 분기 자료에서도 마찬가지로 2020년 1분기 군산시의 지방정부지출 수준이 전국평균을 크게 넘어선 것으로 추정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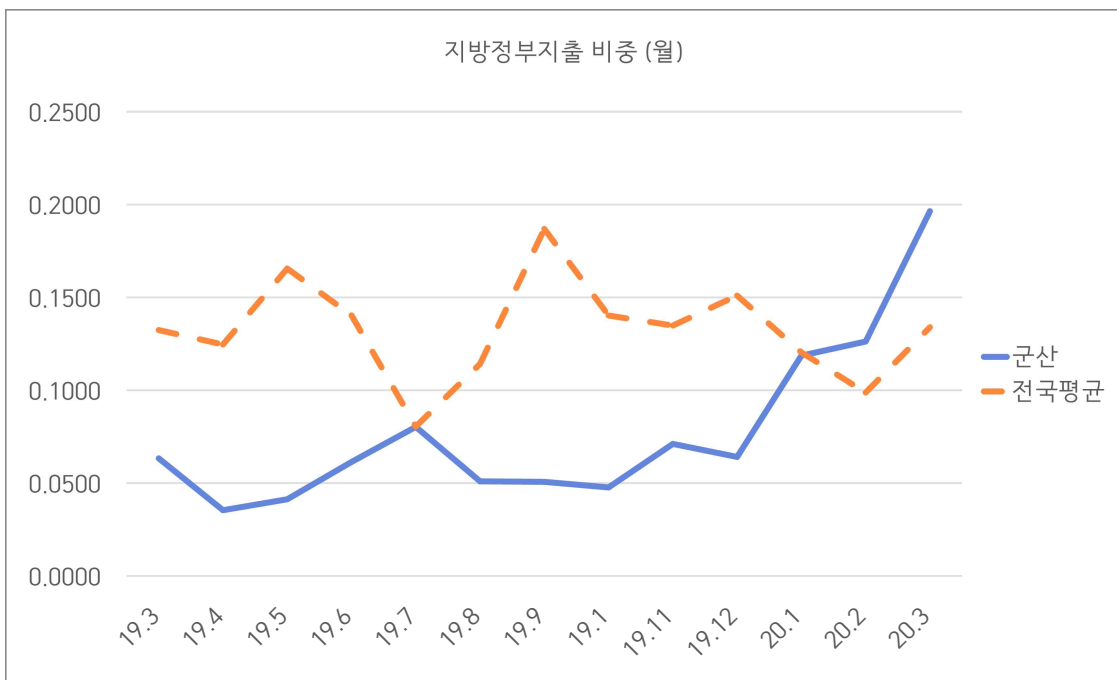
○ 성장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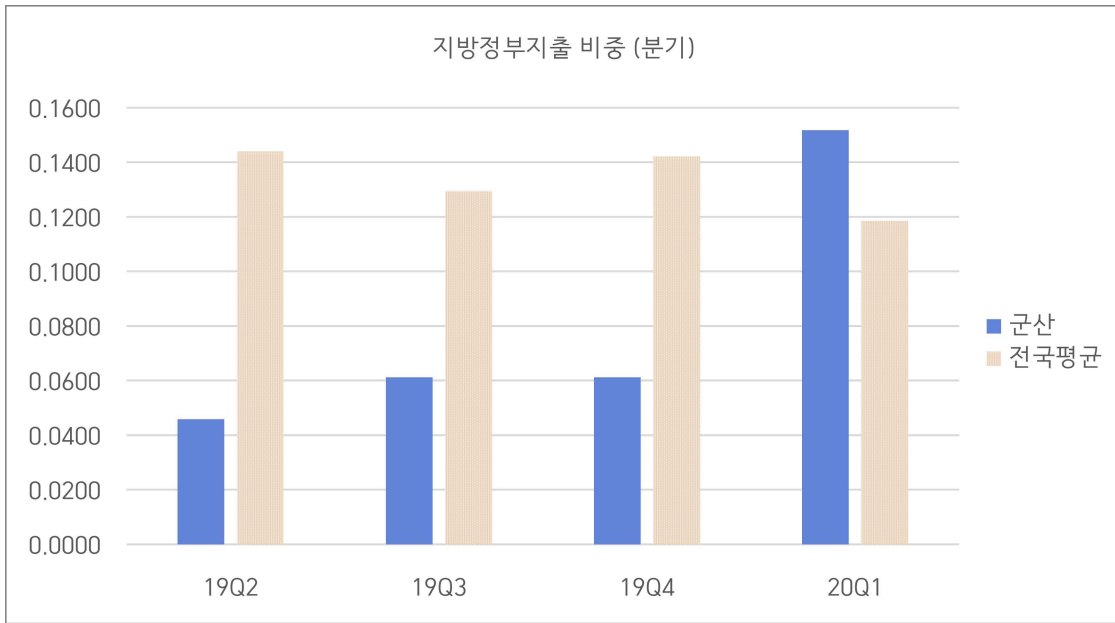




- 월, 분기별 지방정부지출 성장률 자료에서도 군산시의 지방정부지출이 크게 늘어나고 있는 추세가 비교적 명확히 확인됨
- 전국평균 지방정부지출 성장률의 경우 2020년 1분기 오히려 하락하는 현상을 보임

○ GRDP 내 비중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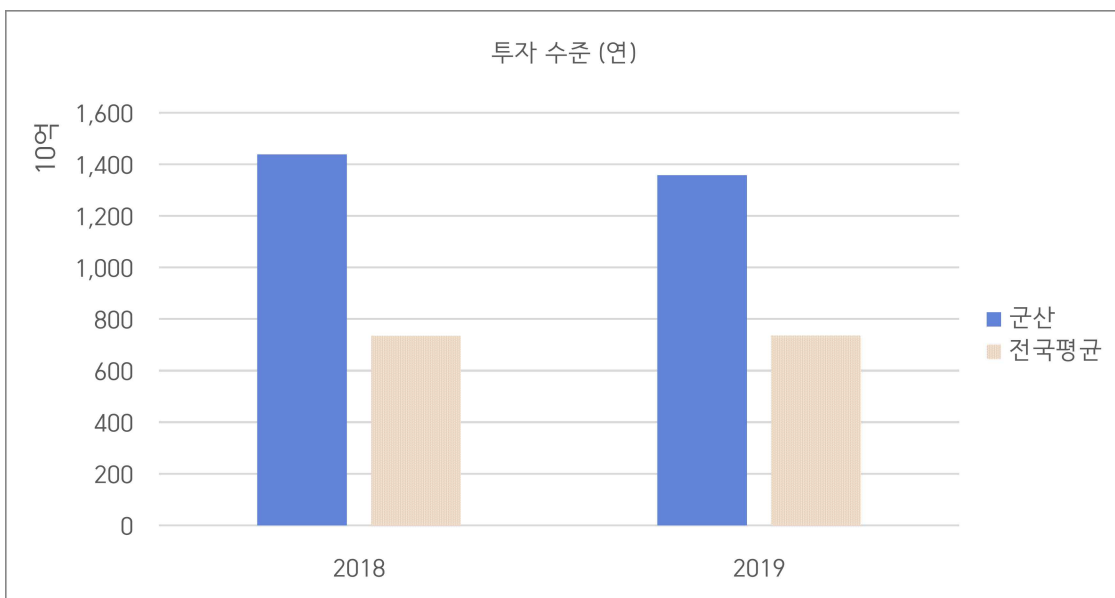




- 지방정부지출이 GR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살펴보면 군산시의 지방정부지출은 절대수준에서 증가했을 뿐만 아니라 GRDP에서 차지하는 비중 또한 상승하고 있는 추세로 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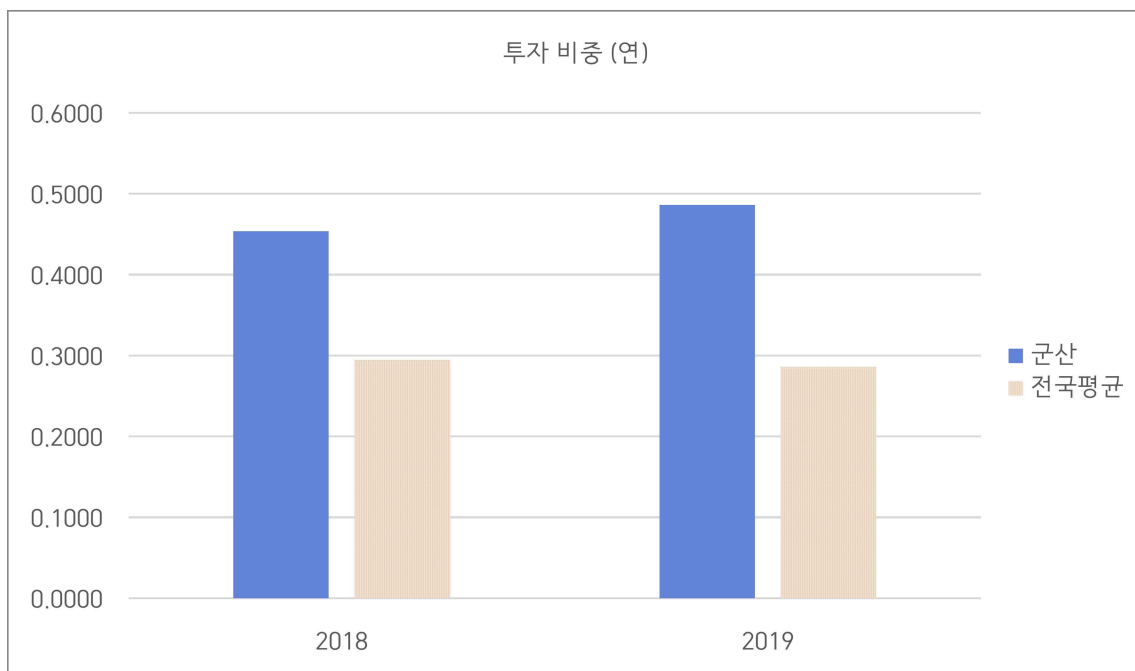
5. 투자지출 추이 (군산시, 전국 평균 비교 / 년)

○ 총액 수준



- 연간 민간투자지출 수준의 경우 군산이 전국평균 대비 압도적으로 높은 수준을 기록함
- 전국평균 민간투자 수준은 약 5,000억원 초반을 기록하고 있는 반면 군산시의 경우 2018년 1조 5천억원에 가까운 민간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추정됨
- 그러나 전국평균 시군구 민간투자액은 보합추세에 있는 반면 군산시의 민간투자액은 2018년 대비 2019년에 소폭 하락한 것으로 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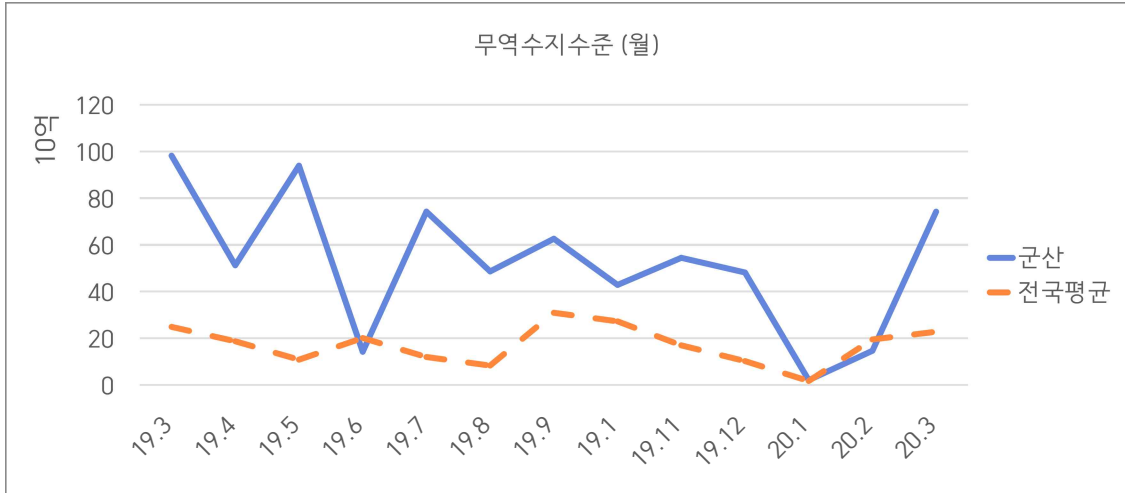
○ GRDP 내 비중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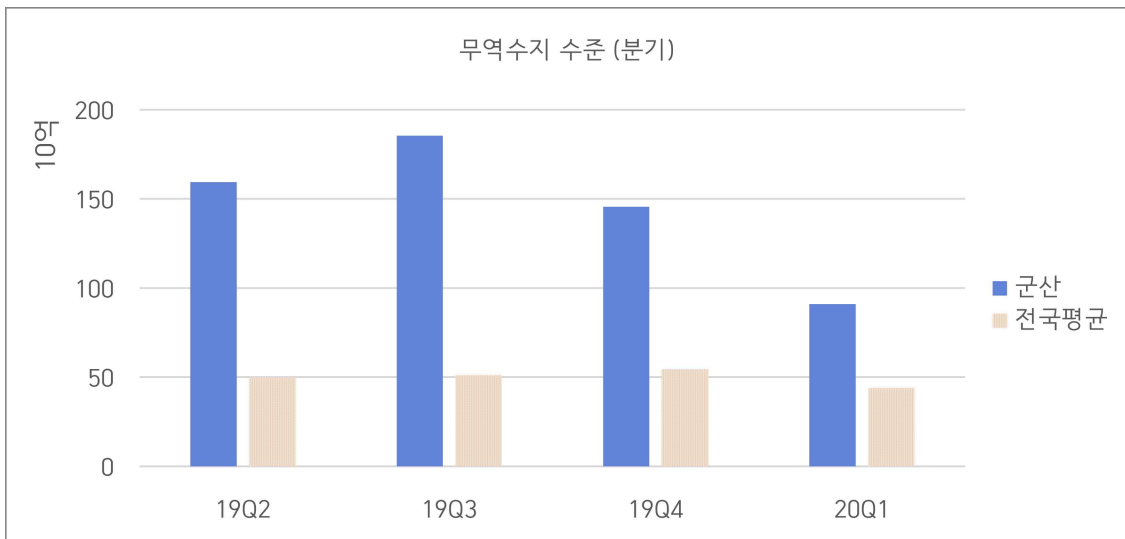
- 민간투자지출이 GR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의 경우 군산시가 약 50%를 기록하고 있어 전국평균 30% 내외 대비 민간투자 비중이 지역 내 GRDP에서 상당히 큰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6. 무역수지 추이 (군산시, 전국 평균 비교 / 월, 분기)

○ 총액 수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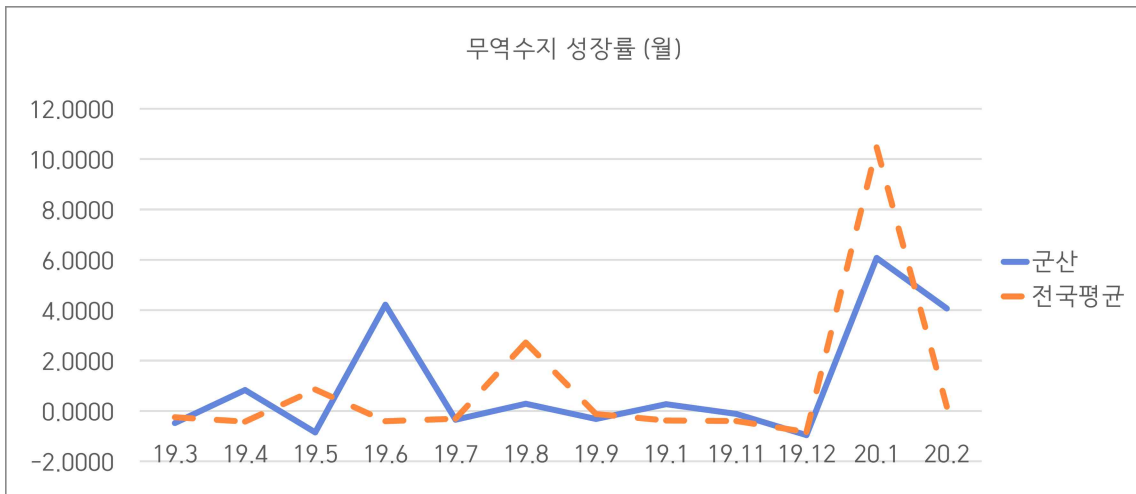


- 무역수지 월별추이의 경우 군산시는 2019년 3월부터 2019년 11월까지의 기간동안 전국평균대비 지속적으로 높은 수준을 기록함
- 2020년 1월과 2월의 경우 무역수지가 다소 하락하여 전국 평균에 수렴하였지만 2020년 3월 재차 상승하여 전국평균을 상회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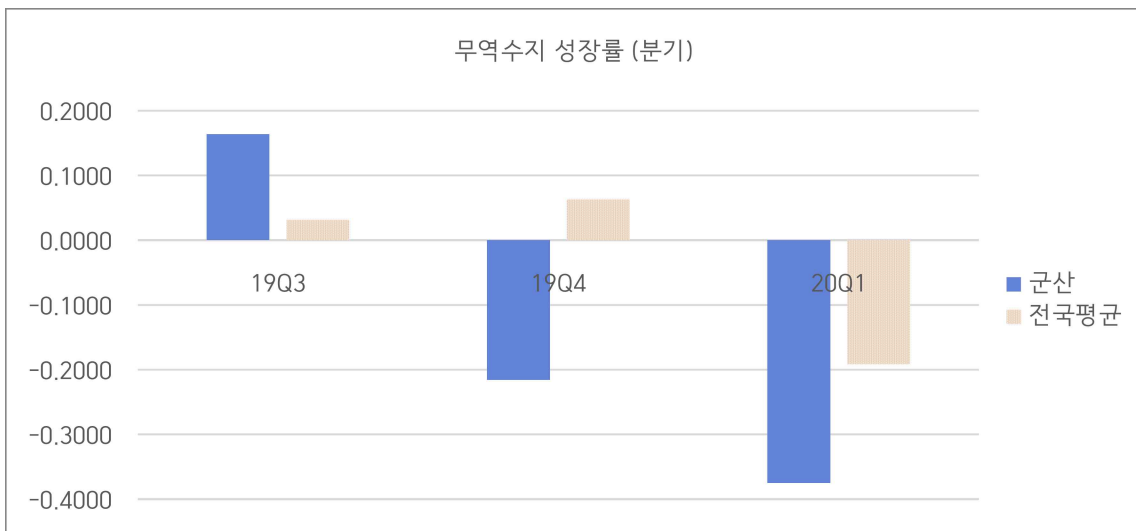


- 분기별로 살펴보면 군산의 무역수지수준이 전국 시군구 평균 대비 월등히 높다는 부분이 확연하게 확인됨
- 그러나 2019년 4분기를 기점으로 전국평균 무역수지와와의 격차가 점차 축소되고 있는 양상을 보임

○ 성장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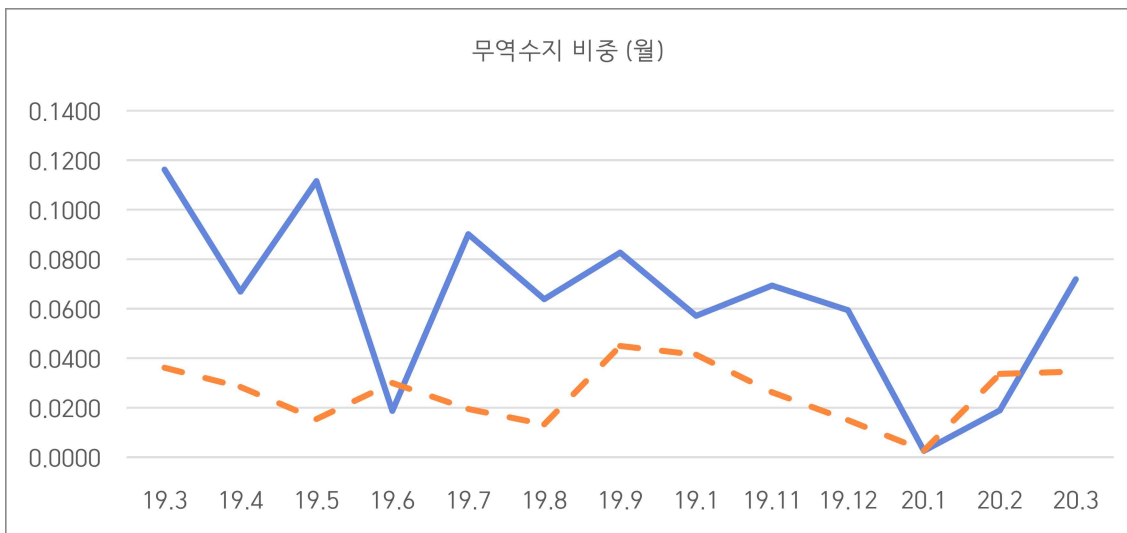


- 무역수지 성장률 또한 무역수지 수준과 전반적으로 같은 추이를 보임
- 2020년 1월 전국적으로 무역수지가 크게 상승하였으나 군산의 무역수지 상승률은 전국평균에는 미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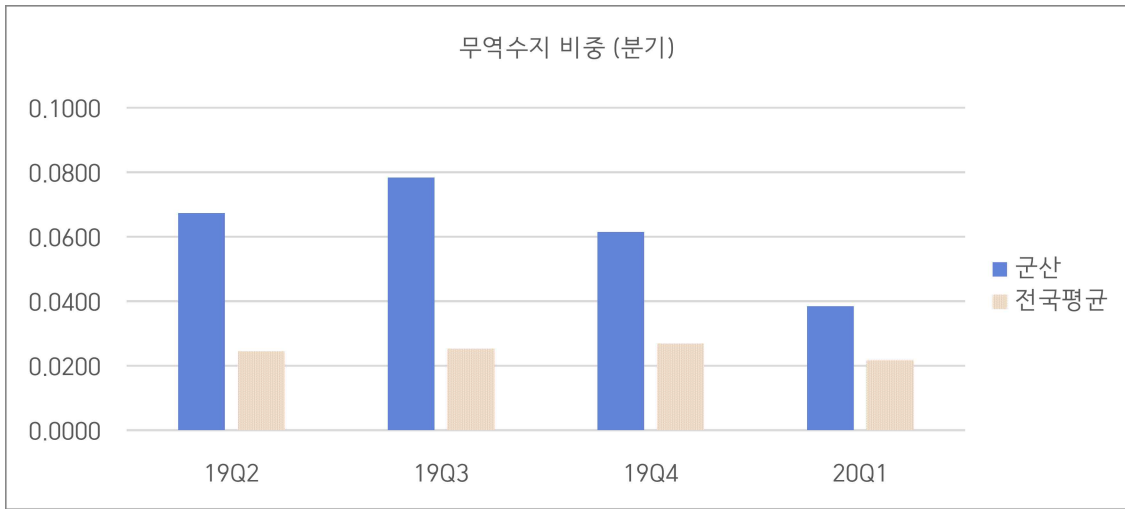


- 무역수지 성장률을 분기별로 살펴보면 2019년 4분기 전국 평균 성장률은 소폭 상승한 반면 군산시의 무역수지는 하락 반전하여 -20% 크게 하락함
- 군산과 전국평균 모두 2020년 1분기 무역수지가 크게 하락한 것으로 추정됨

○ GRDP 내 비중 추이



- 무역수지가 전체 GR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의 경우 전국평균과 군산시 모두 전반적으로 비슷한 추이를 보이고 있음
- 전반적으로 평이한 변동률을 보이던 무역수지의 비중은 2020년 1월을 기점으로 군산시와 전국평균 모두 상승 추세가 비교적 뚜렷해진 것으로 보임



- 2020년 1월 이후 상승추세가 비교적 명확히 확인되는 월별 자료와는 달리 분기자료의 경우 2020년 1월의 무역수지 악화의 영향으로 아직 분기기준 하락을 회복하지 못한 것으로 보임
- 특히 군산시의 경우 무역수지 비중이 2019년 3분기 이후 꾸준히 하락하고 있는 추세가 확인됨

3부

정책부문별 시사점

1. 일자리 부문

[주요 추진현황]

□ 군산고용위기 종합지원센터 운영

- 산업구조 개편에 따른 일자리 수요대응 서비스를 실시하여 친환경 미래 자동차와 신재생 에너지 분야의 양질의 일자리 발굴 및 전기차 조립 및 제어인력 양성과정, 전기자동차 정비인력 과정, 기반산업 수요대응 용적인력 양성, 채용연계형 항공지상조업사 양성과정, 드론과정, 용접인력 양성과정 등 기업수요 맞춤형 직업훈련을 운영
- 취업 취약계층인 여성이나 중장년을 위한 직업훈련으로 산단형 물류생산관리·사무 전문인력 양성과정, 노인맞춤 돌봄서비스 전문인력 양성과정, 지역사회·복지서비스 행정 전문가 양성과정 등을 운영
- 군산고용활성화를 통한 취업역량 강화 일환으로 취업역량 강화 프로그램, 수요맞춤형 취업연계 프로그램(원스톱 일자리 매칭데이, 취업활동 지원, 취업자 사후관리) 등을 실시
- 고용 창출을 위한 중소기업 및 예비 창업자 지원 프로그램으로 창업기초 및 심화교육, 우수아이템 선정 및 초기사업비 지원 등 창원지원, 중소기업 맞춤형 컨설팅 및 고용촉진을 위한 성장지원, 군산형 자동차 대체부품 일자리 생태계 조성 지원사업 등 다양한 사업 운영

□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 군산시가 행정안전부 공모사업에 선정돼 추진하는 사업으로, 지역 특성에 맞는 일자리를 제공해 청년들이 지역의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사업
- 청년 사회문화서비스 기획가 양성사업, 청년노동활동가 양성사업 및 청년큐레이터 양성사업으로 시에서는 인건비 일부와 사회보험료(사업자부담분) 등을 지원

□ 노사상생형 지역일자리 컨설팅 지원사업 착수

- 지역 적합 일자리 모델을 개발하고자 하는 광역·기초단체에 컨설팅 및 사업운영을 지원함으로써 노·사·민·정 협력 모델을 확산하는 정부지원 사업

□ 군산형 청년수당 지원사업

- 고용시장 악화와 어려운 취업난 속에서 취업을 희망하는 지역 청년들에게 구직활동에 필요한 직·간접 비용을 지원해 경제적인 도움을주기 위한 사업
- 신청 대상은 주민등록상 군산에 거주하고 있는 만 18~34세 미취업자 가운데, 고교, 대학, 대학원을 졸업하거나 중퇴한지 2년이 넘은 기준중위소득 102% 이하 가구의 청년
- 최종 대상자 50명을 선발하여 7월부터 월 50만원씩 최대 6개월간 취업준비 비용을 군산사랑상품권으로 지급

□ 공공부문 청년멘토사업

-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 미취업자들에게 행정체험을 통한 취업역량강화 및 지역일자리 제공을 위해 공공부문 청년멘토 22명을 모집

- 최종 선발자는 11개월간 군산시 관과소에서 근무하며 기본 근로조건은 1일 8시간(주 5일 총 40시간) 근무에 월 평균 170만원 정도의 임금을 받음

□ 원스톱 창업컨설팅 지원사업 시행

- 군산시 청년활동 거점공간 및 창업활동지원 전문시설인 '청년뜰'에서 예비 창업자와 초기 창업자를 대상으로 창업에 관한 정보와 사업계획서 작성기술이 부족한 지역창업자에게 사업계획서 작성법과 대면평가 등 기초단계 지원을 해주는 '원스톱 창업컨설팅' 지원사업 시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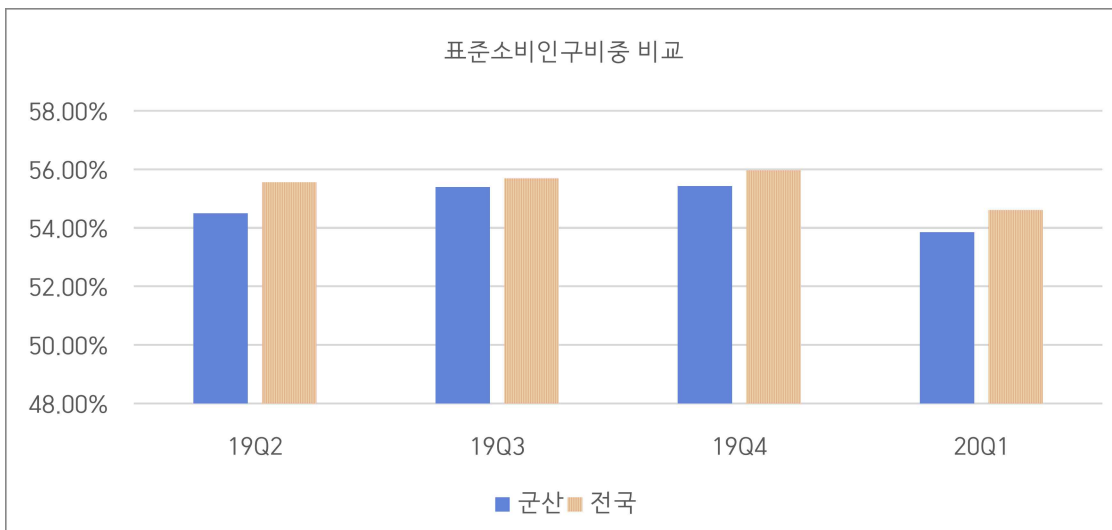
[빅데이터 분석 결과]

□ 실질 일자리 수준 비교

- 표준소비인구 분기별 변화 추이
 - 현재 통계청에서 발표되고 있는 시·군 취업자 수 통계는 전국 11,555 조사구의 231,100가구를 대상으로 조사하여 추정치를 반기별로 발표하고 있음
 - 하지만 통계의 완결성이 높다는 점 외에도 전체 모집단 조사가 아닌 표본 설문조사 방식으로 인한 추정의 오류 가능성이 상존함
 - 또한 취업자 기준을 다소 광범위하게 적용하고 있어 실제 소비로 이어지는 취업 인구에 대한 예측성은 낮다고 할 수 있음
 - 이러한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표준소비인구' 라는 지표 개발을 통해 취업자 수가 아닌 실제 일정 금액 이상을 소비하는 인구를 집계함

- ‘표준소비인구’란 국가 전체 민간부문 소비를 국가 전체 취업자 수로 나눈 숫자로 평균적인 취업자가 매월 얼마의 지출을 하고 있는지 살펴보는 지표임
- ‘표준소비인구’가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도출하여 해당 지역사회에 존재하는 실제 소비 인구를 상호비교하여 각 지역별 경제활성도를 측정할 수 있음

[표준소비인구비중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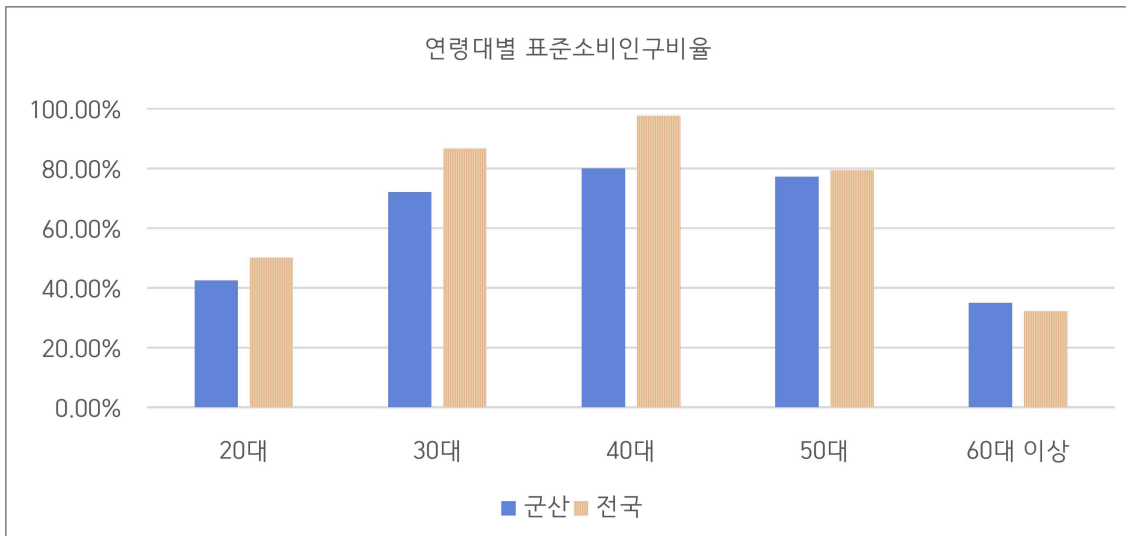


- 군산의 표준소비인구 비중은 분기별로 약 54%에서 57% 내외를 기록함
- 즉, 군산의 총 인구 중 전국 취업자의 평균적 금액만큼 소비하는 인구가 전체 군산 인구의 약 50% 중반을 차지한다는 의미임
- 군산의 표준소비인구 비중은 2019년 3분기부터 2020년 1분기까지 전국 표준소비인구 비중에 못 미치는 수준을 나타내고 있음
- 특히 2019년 3분기 두 비중의 차이가 다소 줄어들었으나 2020년 1분기 재차 확대되어 가고 있는 것으로 보임

○ 군산시 연령대별 표준소비인구 비율 비교

- 군산시 연령대별 상대적 수준으로 보면 20대와 60대가 낮은 수준이나 이는 미취업자, 은퇴자 등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며, 60대의 경우는 전국 평균 대비 소비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파악됨

[연령대별 표준소비인구비중 비교]



- 특히 20대에서 30~40대로 갈수록 전국평균과의 격차가 크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취업자 수가 같더라도 군산시의 20~40대 취업자가 소비하는 수준이 전국평균 대비 떨어진다는 것을 의미함
- 청년층 등 기존의 정책지원 범위를 20~40대까지 확대할 필요가 있으며, 이들 연령대의 일자리 수 증대뿐만 아니라 일자리의 질을 높이는 정책적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정책방향 시사점]

- 일자리의 양보다는 질적 성장 지원 강화
 - 통계적 취업자 수만으로는 지역경제의 활성화 수준을 직접 가늠하기 어려움
 - 전국적인 비교 기준을 가지고 군산시의 실제 경제활성화에 기여하는 인구수(또는 취업자수) 추이를 분석하는 방안 필요
 - ‘표준소비인구’ 등 군산시에서 전국 평균적 소비금액 만큼 소비하는 인구의 비중 파악 등 필요
- 청년층 취업지원 예산 및 대상자 연령 확대
 - 군산시의 연령대별 소비 수준을 파악한 결과, 20대~30대 뿐만 아니라 40대의 경우도 전국 평균 대비 소비 수준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남
 - 기존의 청년 취업 지원 정책과 더불어 40대에 대한 취업 지원, 일자리의 질 향상 추진 확대가 필요함을 의미
 - 20~40대에 대한 취업 및 일자리 관련 예산 비중 확대가 필요하며, 취업률을 높이는 지원과 동시에 취업의 질을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정책 전환이 필요
- 군산시 혁신 산업과 연계한 직업교육 및 취업 매칭 강화
 - 신재생에너지 산업, 전기자동차 및 미래형자동차 부품 산업 등 군산시가 중점을 두고 있는 전략 산업 분야의 직무교육, 직업훈련 교육 강화 필요
 - 첨단 부품 산업 분야 등의 경우, IoT/빅데이터 등 4차산업 혁명 기술과 융합된 재교육은 물론 청년 창업지원 등 결합 필요

2. 산업혁신 부문

[주요 추진현황]

□ 일감 창출형 대체부품산업 생태계 구축사업

- 자동차산업의 위기 극복을 위해 자동차 부품기업이 보유한 기술과 인프라를 활용해 대체부품산업을 전환을 통한 자동차산업의 다각화를 도모하고자 일감 창출형 대체부품산업 생태계 구축사업을 추진
- 2020년부터 2021년까지 2년간 국비 75억원을 포함한 총 사업비 150억원이 투입돼 공동활용 장비 및 데이터통합 관리시스템 등 장비 5종 구축과 기업체의 시금형(제품) 개발지원으로 자동차 대체부품산업 활성화를 위해 시행
- 자동차 부품기업의 기술개발과 제품의 다변화를 통한 국내외 시장 확대 등으로 사업의 다각화 기회를 마련하고 그에 따른 고용유지 등 인력 창출의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됨

□ 중고차 수출 복합단지 조성사업

- 군산 중고차 수출복합단지는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오식도동 일원(22만7396㎡)에 총 1008억원을 들여 수출 비즈니스센터(경매장·품질인증센터), 매매업체 입주 단지, 정비·튜닝부품단지 등을 조성하는 사업을 추진
- 중고차 수출복합단지가 조성되면 경제 사회적 편익은 모두 2050여억원, 고용창출 1040여명 등에 이를 것으로 기대됨
- 대기환경개선 사회적 편익비용이 발생으로 예산 절감 및 미세먼지 저감 효과 기대

- 군산항 활성화에 기여하여 이와 관련한 일자리 및 산업, 중고차 복합단지를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인력들에 대한 교육, 역량강화·고용 등을 통해 지역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됨

□ 조선기자재기업 신재생에너지 업종전환 지원

- 조선기자재기업의 보유 기술과 연계가 높은 신재생에너지 산업으로 업종전환 지원을 통해 새로운 성장 동력 확보, 지역경제 활성화, 일자리를 창출 효과를 기대함
- 올해부터 2022년까지 군산2국가산업단지 내에 해상풍력 하부구조물 및 태양광 구조물 가공제조를 위한 합동화공장과 장비 구축을 핵심으로 하며, 약 320명의 고용유발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됨

□ 2020년 신규 미래산업 추진

- 해상풍력 산업지원센터 구축
 - 에너지산업 발전을 위한 유지보수교육, 안전기술교육, 자격인증 및 부품인증기관 등 종합적인 해상풍력 지원센터를 2020년~2024년에 새만금 산단 2공구에 설립 추진되며 사업비는 370억원
- 가변플랫폼 기반 소형 전기버스/ 트럭 운영시스템 개발
 - 미래 모빌리티로서의 자동차산업 패러다임 변화에 대응하고 상생형 일자리 창출을 위한 핵심기술을 개발하는 사업으로 2022년까지 추진되며 사업비는 220억원

○ 새만금지역 상용차 자율주행 테스트베드 구축

- 자율군집주행 실증을 위한 시험기반 구축, 자율군집주행 운영·관리 관제센터 및 장비구축, 자율군집주행 실증 지원시설로 2021년까지 새만금방조제 하부도로에 조성되며 사업비는 200억원

○ 상용차 산업 혁신성장 및 미래형 산업생태계 구축

- 상용차 산업의 핵심부품 기술개발과 혁신성장 플랫폼 구축을 통한 미래차 시장진입 촉진 및 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 2024년까지 새만금 일원에 조성되며 사업비는 1,621.35억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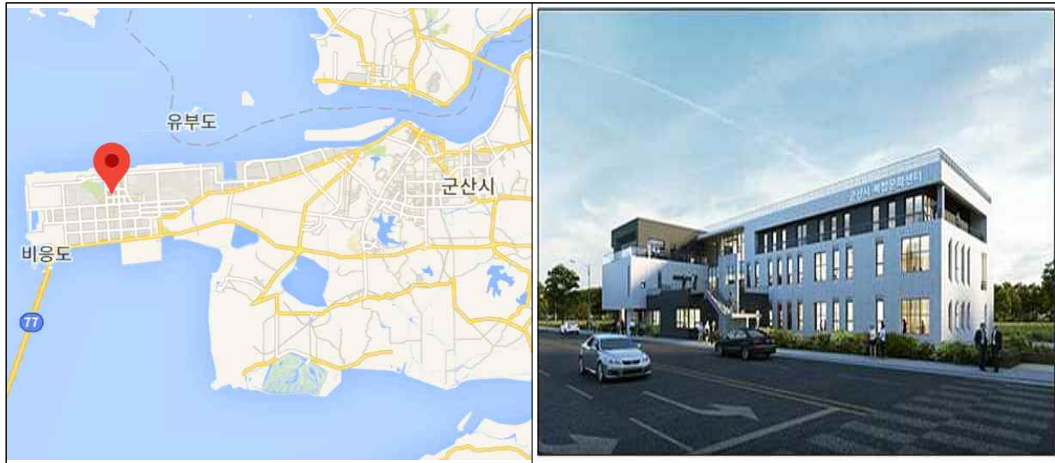
□ 군산2국가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 건립 추진

- 현재 군산시는 청년 근로자층의 유입을 강화하기 위해 산업단지 내 복합문화센터 건립 등 정주환경을 개선하려는 정책적 방향을 정립하고 추진중에 있음
- 시내와 접근성(25km)이 떨어진 산업단지 내 문화·체육·편의시설 부재로 청·장년 및 기술인력 근무 기피 심각함에 따라 복합문화센터를 건립
- 근로자의 근무환경 개선 및 지역주민의 정주여건 개선으로 청년유입 강화 목적

[군산2국가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 설립 개요]

위치	오식도동 요죽공원
규모	지상 3층(연면적 3260㎡)
총사업비	98억원(국비 33억원, 도비 10억원, 시비 55억원)
준공(예정)	2021년
세부내용	1층: 민원센터, 기업지원센터, 보건지소, 다목적 공연·전시실 2층: 작은 도서관, 평생학습센터, 카페테리아 3층: 다목적체육관, 체력단련장 등

[복합문화센터 위치 및 조감도]



[빅데이터 분석 결과]

□ 지역경제 및 산업단지 활성화에 기여하는 요인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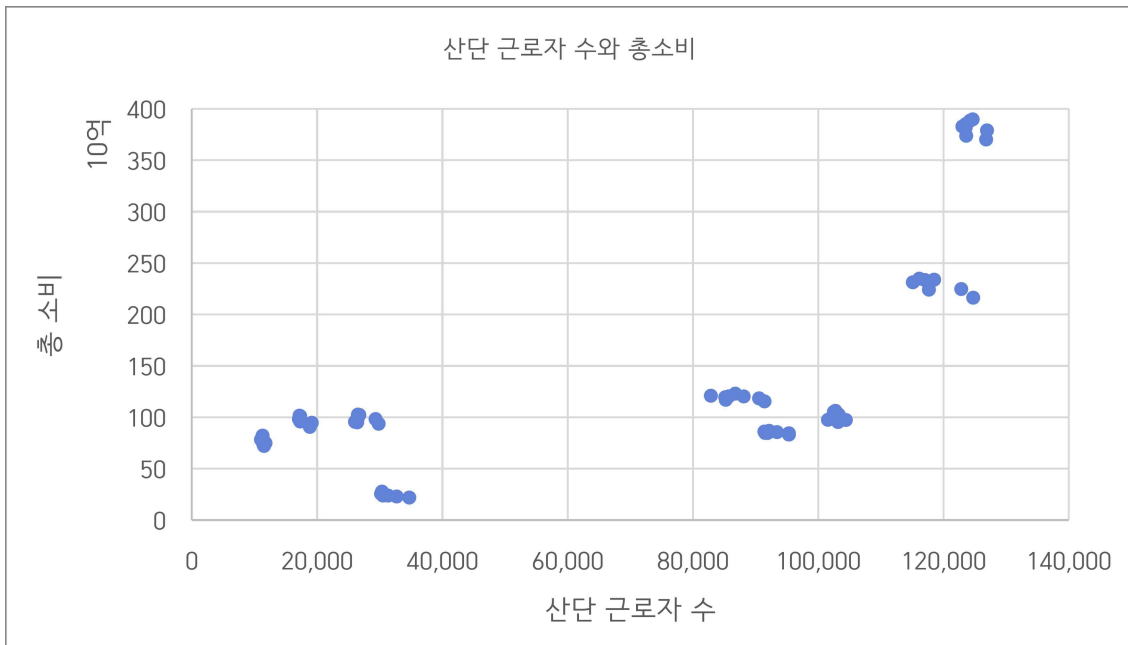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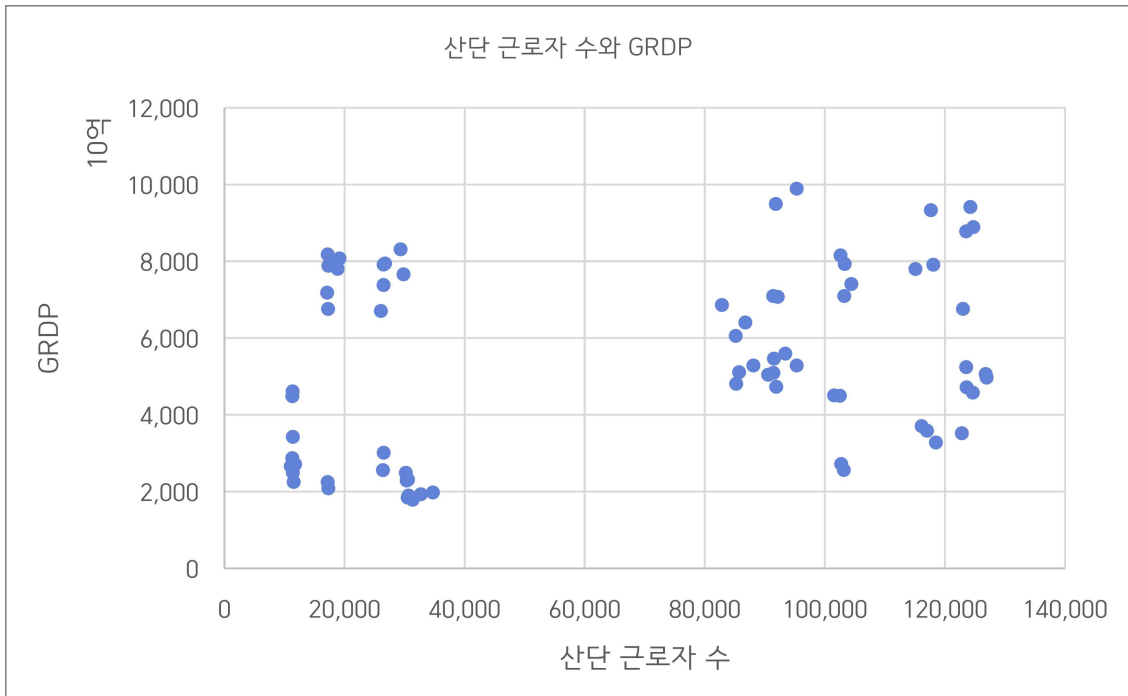
- 전국 주요 산업단지 근로자 수와 소비 및 GRDP 관계
 - 산업단지 내 기업유치 및 근로자 수 증대가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살펴보고, 산업단지의 기업유치를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함
 - 군산시와 비교 가능한 전국 주요 국가산업단지 분석

[비교대상 산업단지 및 해당 시·구]

광역시도	지역	산업단지
부산광역시	강서구	녹산지구산업단지
경상북도	구미시	구미시국가산업단지
전북	군산시	군산산업단지/군산2
울산광역시	남구	울산·미포 산업단지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산업단지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산업단지
광주광역시	북구	광주첨단과학단지
경기도	안산시	반월산업단지
경상남도	창원시	창원산업단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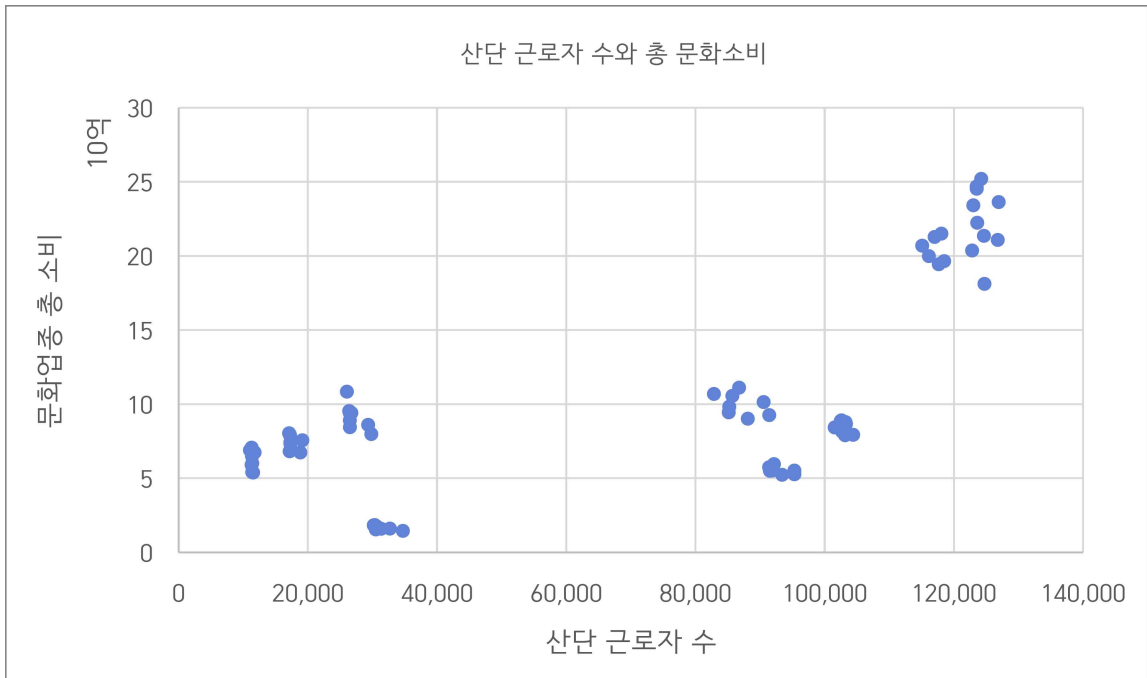
※출처: 한국산업단지공단

[산단 근로자 수와 지역경제 측정 변수]



- 전국 주요 산업단지를 보유하고 있는 9개 시군구의 산단 근로자 수와 GRDP, 총 소비, 총 문화업종 소비를 비교한 결과 산단 근로자 수는 지역의 총 소비와 양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임

[산단 근로자 수와 문화소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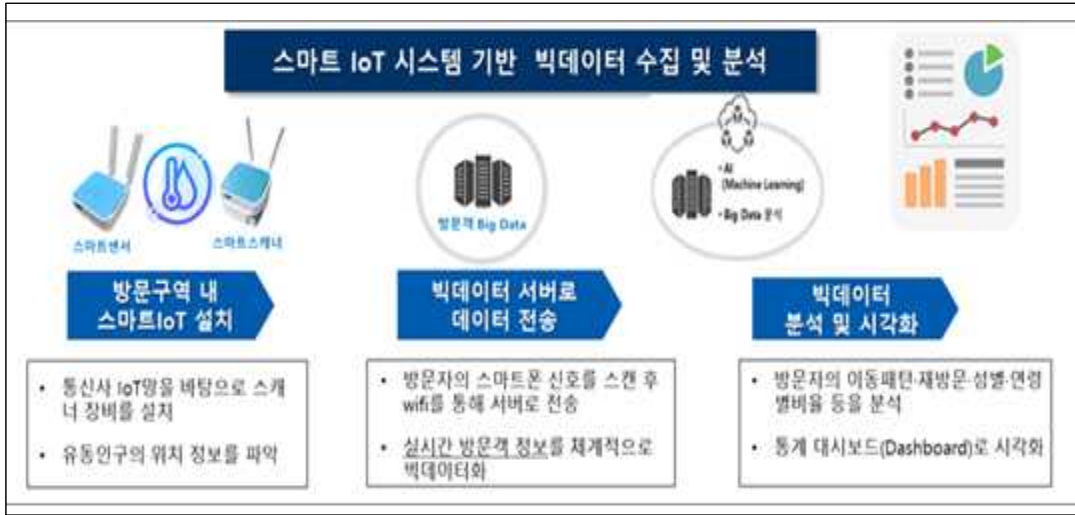


- 전체 소비 중 각 산업단지의 근로자 수와 해당지역의 문화관련 업종(레저용품업, 레저업소, 문화/취미 업종 등)의 매출액을 살펴보면 비교적 뚜렷한 양의 상관관계 존재
- 특히 총 소비보다는 총 문화소비 상관계수가 더 높아 산단 근로자 수와 문화소비 간에는 밀접한 연관이 있는 것으로 보여 두 변수 간에는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됨
- 이는 산단 종사자 수가 늘어남에 따라 지역 소비, 특히 문화 부문 소비가 늘어난다는 의미는 물론 문화 소비가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산단 종사자 수가 늘어난다는 의미도 동시에 포함

[정책방향 시사점]

- 산업단지 기업 및 종사자들을 위한 정주환경 및 맞춤형 문화여건 개선 강화
- 군산시가 추진하는 산업단지 내 복합문화센터를 포함한 주요 지역 문화 거점에 대한 이용현황 및 실태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산업별 기업유치 전략에 활용
 - 기업별/공단별/시간대별/연령대별 등의 문화분야별 이용 분석을 통해 가장 필요한 문화여건 도출
 - 복합문화센터 등 문화소비 이용률과 이용자의 근속률 등 근로환경 개선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산업별 이용 행태 분석을 실시하여, 이용자 중심 문화시설 확대에 기업투자 유인 강화
- 유동인구 분석은 통신사 데이터 구매·분석 방식, 또는 군산시 자체적인 유동인구 분석 인프라 구축 가능
 - (대안 1) 통신사(KT, SKT 등) 데이터 활용 분석
 - : 통신사 기지국 단위로 발생하는 인구를 성·연령·시간대별 등 통계 데이터를 생성해 유동인구를 파악 (초기 투자비는 없으나 지속적인 데이터 구매 필요)
 - (대안 2) IoT 센서 기반 데이터 분석
 - : 사물에 센서와 통신 기능을 내장하여 인터넷에 연결하는 IoT 기술을 활용하여 군산시 자체적으로 유동인구를 파악 (초기 설비투자비가 소요되나, 이후 데이터 구매 불필요)

[IoT 센서 기반 데이터 분석 개요]



□ 기업 설비투자 촉진 정책 강화

- 안정적 일자리 창출과 수출 증대를 위해 군산시가 육성하는 핵심 산업 분야에서 기업 투자 지원 연계 필요
 - 대체부품산업, 조선기자재 설비, 신재생에너지 산업 등 중점 육성 분야 설비투자시 민간투자자 매칭 연계 지원 등 추진

□ 혁신산업 생태계 지역 인재 전문성 강화

- 지역 대학 등과 연계하여 전략 산업군의 기업을 위한 맞춤형 일자리 교육과정 제공을 통해 군산시의 기업 경영 매력도 향상 추진 필요
 - 해상풍력, 태양광 등 신재생발전 설비 운전, 유지관리 등 직무교육 제공을 통한 산업 인재 공급 추진
- 자동차 부품 산업, 대체부품산업 등 분야의 경우, IoT/빅데이터 등 4차 산업혁명 기술 접목을 위한 재교육 지원

3. 소상공인 활성화 부문

[주요 추진현황]

□ 군산사랑상품권 활성화

-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침체된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 4월부터 6월까지 3개월간 한시적으로 군산사랑상품권을 10%로 특별 할인 판매
- 기존 할인비율이 8%에서 10%로 늘어나고 한도도 7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늘어남

* 군산사랑상품권은 2018년 9월부터 도입되었으며, 15개월 동안 총 4910억원을 발행함. 판매 실적은 발행 첫 달 135억원에서 올해 1월 371억원을 달성하였으며, 현재 가맹점은 1만 98개소로 지역사랑상품권을 10년 이상 운영하고 있는 타 지방자치단체에 비해서 2배가 넘는 수준임

□ 군산사랑배달앱 ‘배달의 명수’ 운영

- 군산시에서 전국 최초로 도입한 이용 수수료와 광고료가 없는 공공배달앱
- 3월 13일 정식 서비스를 실시하였으며, 4월 기준 군산시 요식업체 1200곳 중 761 곳이 가맹점으로 등록하였으며, 서비스 시작 첫날 5138명에서 4월에는 8만 2618명으로 증가함

□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 담보능력이 부족해 제도권 은행 대출이 사실상 어려운 지역 소상공인에게 군산시와 전북신용보증재단이 보증서를 발급해 운영자금 대출이 가능하도록 하는 제도

- 군산시에서 재원을 출연해 100억원 규모의 대출이 가능하도록 했으며, 대출한도를 기존 2,000만원에서 최대 5,000만원까지 높이고 자부담 금리를 기존 2%에서 1.7%, 대출기간을 기존 2년에서 6년으로 완화함

□ 코로나19 피해 대응 소상공인 지원

- 영세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사업 대상 확대

- 코로나19 등 가중되는 경기침체 여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소상공인들을 위해 '영세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사업'을 확대
- 연매출액 1억2000만원 이하 소상공인에게만 지원되던 카드수수료를 연매출 3억원 이하 소상공인까지 확대 지원

- 소상공인 공공요금 지원

- 연매출 2억원 이하인 소상공인의 안정적인 경영을 돕기 위해 소상공인들의 전기, 상하수도, 도시가스 등 공공요금 3개월분 60만원 지원

- 사회보험료 지원

-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대상자(월 평균 보수 215만원 이하)에게 고용중인 근로자에 대한 4대 보험료 사업자 부담분을 지원(근로자 1인당 연간 100만원 정도)

[빅데이터 분석 결과]

□ 주요 소상공인업종 매출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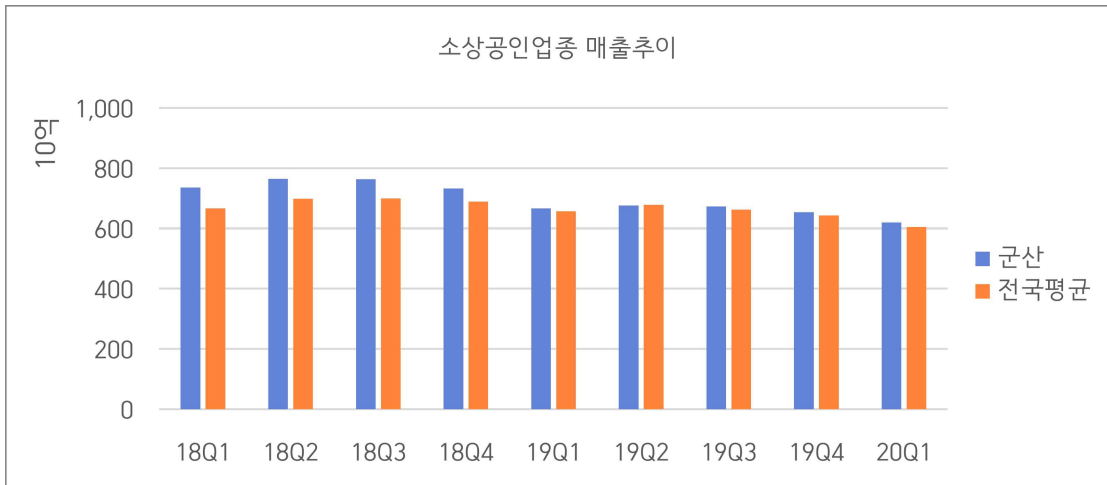
- 인구기준 유사 시군구 소상공인업종 전체 매출과 군산시 비교 (분기, 전국)

[주요 소상공인업종 분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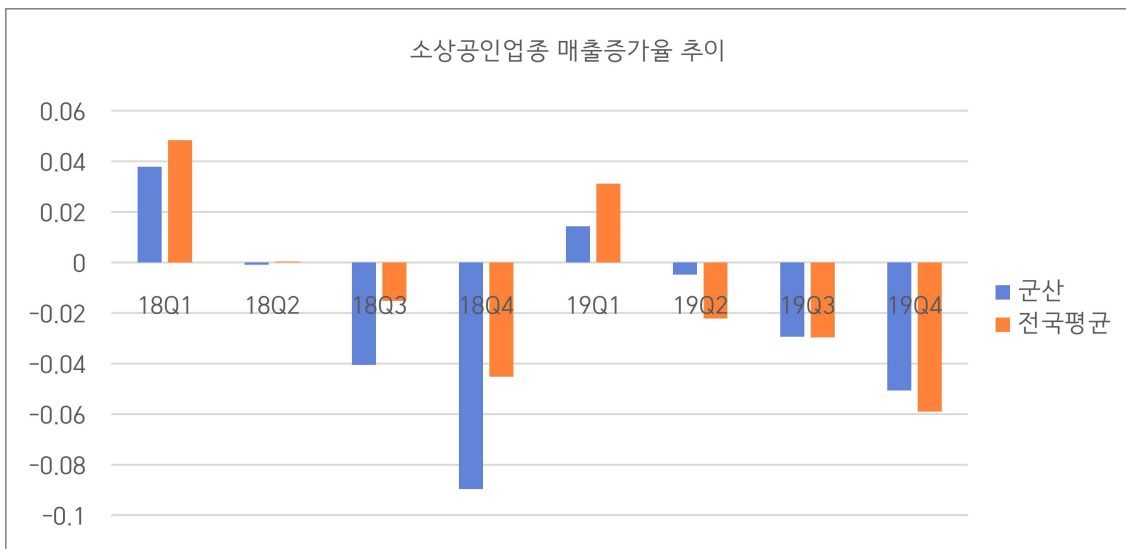
1	택시	14	사진관	27	약국
2	골프 용품	15	편의점	28	산후조리원
3	스포츠레저용품	16	슈퍼마켓	29	이용원
4	피아노대리점	17	복지매점	30	미용원
5	골프연습장	18	양품점	31	안경점
6	볼 링 장	19	맞춤복점	32	일반한식
7	테니스 장	20	귀금속	33	일식회집
8	헬스클럽	21	기념품점	34	중국음식
9	당구장	22	보습학원	35	서양음식
10	노래방	23	독서실	36	제과점
11	골동품점	24	유학원	37	정육점
12	화 랑	25	컴퓨터	38	세탁소
13	일반가구	26	세차장		

- 군산시의 소상공인 경제활성화 정도를 살펴보기 위하여 소상공인이 많이 분포해 있을 것으로 예측되는 업종 (편의점, 당구장, 노래방, 슈퍼마켓 등 38개 업종)을 선별하여 해당 업종의 매출액 추이와 성장률을 살펴봄

[소상공인업종 매출추이]



[소상공인 매출증가율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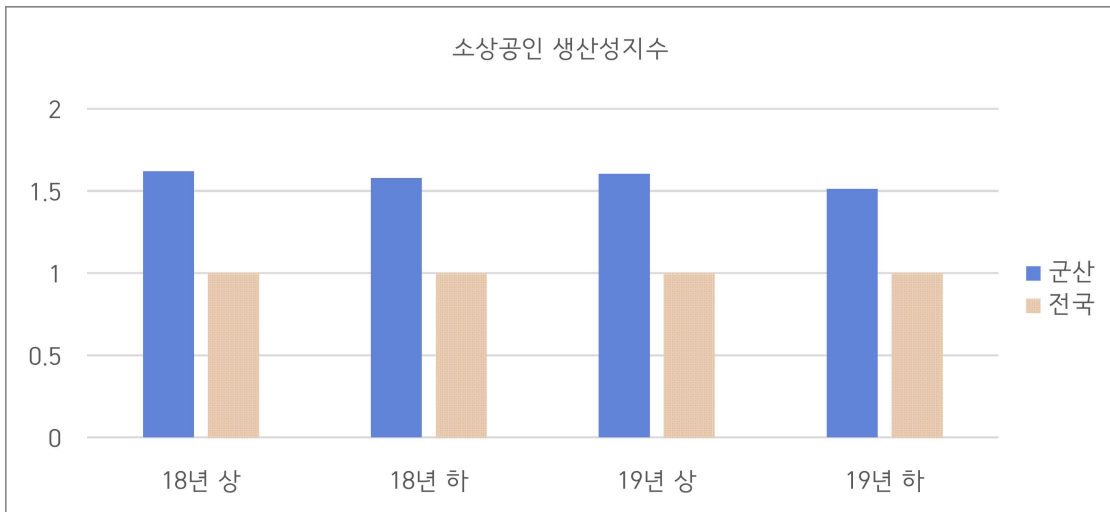
- 2018년 1분기부터 2018년 4분기까지는 전국 평균을 상당폭 상회하는 매출을 올렸으나 2019년을 시작으로 점차 매출이 감소함
- 소상공인 자영업자 및 종사자들이 느끼는 체감 경기는 2019년 들어 상대적으로 하향 인식될 것으로 예상됨

□ 소상공인 해당 업종 생산성 비교 (소상공인 생산성 지수)

○ 소상공인 부문 생산성 반기별 변화 추이

- 소상공인의 생산성 측면을 측정하기 위하여 소상공인 ‘생산성지수’ 를 계산하여 측정함
- 소상공인 생산성지수는 소상공인업종의 매출을 해당지역 자영업자 수로 나누고 전국대비로 표준화시켜(즉, 전국은 항상 1의 값) 시군구 지역간 비교가 용이하도록 고안함

[소상공인 생산성지수]



- 군산시의 소상공인 생산성지수를 전국 평균과 비교하면 아직까지는 전국 평균에 비하여 월등히 높은 1.5 이상임
 - 군산시 소상공인업종 생산성은 대규모 상권이 혼재해 있는 수도권 등 인구밀집지역 대비 양호한 수준으로 보임
- 유사 시군구 소상공인 업종 반기별 생산성(소상공인 업종 총 매출/자영업자 수)과 군산시 비교
- 전국에서 군산의 소상공인업종이 차지하는 위치를 가늠해 보기 위하여 군산과 비슷한 인구의 시군구를 선정하여 소상공인 생산성지수를 비교함

[유사 시군구 소상공인 생산성지수 비교]

지역	18년 상반기	18년 하반기	19년 상반기	19년 하반기	지역 평균
거제시	1.9221	1.9266	1.8485	1.8965	1.8984
경산시	1.7570	1.6330	1.6581	1.5405	1.6472
군산시	1.6196	1.5779	1.6036	1.5133	1.5786
춘천시	1.5867	1.4080	1.4683	1.4663	1.4823
여주시	1.4371	1.4183	1.4319	1.4245	1.4279
순천시	1.3382	1.2417	1.3439	1.3066	1.3076
익산시	1.3360	1.3092	1.2041	1.2386	1.2720
경주시	1.2088	1.1311	1.2112	1.1714	1.1806

- 군산시의 생산성지수는 비슷한 규모의 8개의 지역사회 중 세 번째로 높은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음
- 다만, 2019년 이후 소상공인 매출이 주는 가운데 생산성이 유지되고 있어 이는 군산시 자영업자 수의 감소를 의미하며 과거 소상공인 종사자의 일시적인 실업 문제에 대한 관심이 필요함

[정책방향 시사점]

- 향후 소상공인 매출 감소 문제와 함께 폐업에 따른 문제 대두 전망
 - 군산시 소상공인의 매출은 감소하고 있으나 현재 생산성은 유지되고 있으며, 이는 자영업자 수의 감소를 의미
 - 2019년 소비경기 하락과 최근의 코로나 19 사태를 겪으며 향후 군산시에서 소상공인 폐업 증대, 자영업 직종 전환에 따른 일시적인 가계운영 불안 문제가 대두될 가능성이 높음

- 소상공인 정책 지원 대상자 범위를 현재 소상공인업종 유지 사업자뿐만 아니라 1년 내 폐업한 사업자까지 확대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이때 주요 정책 지원은 전직 지원(교육, 취업컨설팅 등), 업종별 경영 컨설팅 지원 등 재도약 패키지 형태로 구성
 - 특히, 은퇴한 노부모나 어린 자녀 등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30~40대), 사업자등록 유지와 관계없이 신용보증재단과 연계한 긴급가계운영자금 대출 지원 검토 필요

□ 군산사랑상품권 업종별 할인 차등화 정책 도입

- 구매시 10% 일괄 할인해서 지원해주는 방식에서 소상공인 업종 여부, 매출감소 업종 등 업종별 경기 여건에 따라 할인폭 차등화 검토 필요
 - 10%, 7%, 5% 등 차등화된 할인율 적용 추진
- 또는 할인율은 현행대로 유지하면서 1인당 구매 한도를 소상공인 업종 여부 등 업종별 여건에 따라 상향하는 방식 검토 가능
 - 1인당 100만원 한도 초과 후 소상공인 지정 업종 전용 상품권 추가 구매 허용(1인당 최대 추가 30만원 등)

3. 관광 활성화 부문

[주요 추진현황]

□ 문화도시 지정 공모사업 신청

- 현재 군산시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주관하는 문화도시 공모사업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음

* 문화도시 조성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지역 스스로 도시의 문화환경을 기획·실현해 나갈 수 있도록 5년간 포괄적으로 예산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역별 특성에 따라 최대 200억원을(국비50% 지방비50%) 지원하여 문화도시 조성을 뒷받침 함

- 상반기 중 신청을 통해 11월중 승인을 받으면 1년간의 예비사업을 거쳐 문화도시로 지정받게 되며, 이를 위해 지역 문화 발굴을 비롯해 지역 이야기 발굴사업, 문화도시 네트워크 형성 등을 구축하고 지역주민화합 및 지역 협력체계와 네트워크 구축 강화를 계획

□ 관광객 유치확대 전략

○ 공격적인 관광 마케팅

- SNS 기반 관광홍보를 강화하기 위해 다양한 군산의 매력을 주제로 ‘군산관광 UCC 영상 공모전’을 개최
- 공직자, 관광산업 종사자,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관광 아카데미를 개최해 관광마인드를 함양시키고, 군산시 주요 축제 및 행사에 대한 이해를 넓혀 적극적인 행사 참여를 유도
- 군산시에서 열리는 크고 작은 축제들과 연계해 사전 공동홍보마케팅 추진
- 관광객들의 시티투어버스 접근성을 고려해 승하차 지점을 익산역까지 확대 운영

- 대표축제인 시간여행축제의 시민참여를 더욱 확대하고 위상을 강화해 전국단위 대표축제로 승화시킬 계획

○ 체류형 관광 활성화

- 체류형 단체관광객 유치를 위해 여행사에 지원되는 인센티브를 확대하고 모범업소에 대한 홍보물품도 지원
- 전국 초·중·고등학교 수학여행을 집중적으로 공략하기 위해 교육청 및 각급 학교와 공동으로 수학여행단 유치를 위한 교육관광 업무를 추진

○ 관광 인프라 확충

- 은파 수변산책로와 비응항 해양체험 산책로 개통
- 고군산군도 내 편의시설 및 조형물을 추가 설치, 기존 장자교를 활용한 해상인도교 스카이워크 조성사업 등 해양관광 인프라 확대
- 주요 관광지 내 자연경관과 포토존을 연결한 연계코스 개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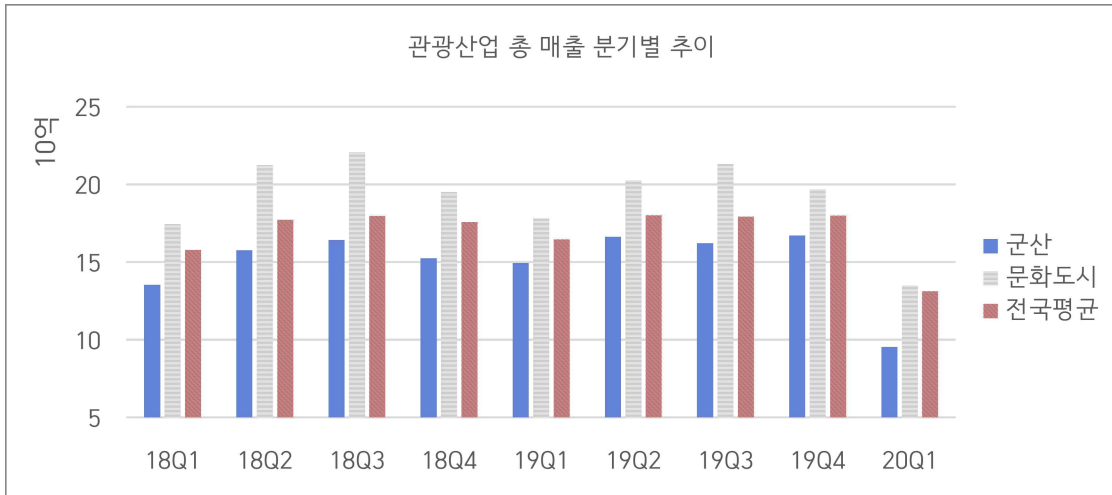
[빅데이터 분석 결과]

□ 여행업, 숙박업 등 관광업 매출 추이(10개 문화도시 비교)

○ 유사 시군구와 군산시 관광업 총 매출 추이 비교

- 군산의 관광산업의 전반적 추이를 살펴보기 위하여 관광산업(여행업, 숙박업 등)을 선정하여 해당 업종의 총 매출을 분기별로 살펴봄
- 문화체육관광부가 2019년에 선정한 10개의 문화도시의 관광산업 매출 총액의 평균을 비교함

[관광산업 총 매출 분기별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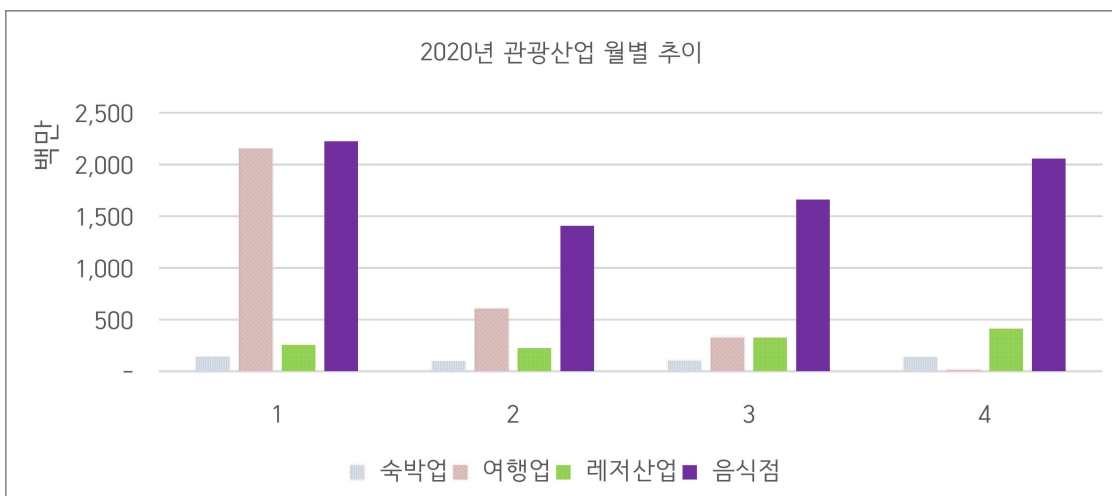


- 군산시의 관광산업 규모는 전국 평균에는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추정되나 분기별 전반적인 추이는 전국평균, 그리고 문화도시 평균과 비슷한 것으로 보임

○ 숙박, 여행, 레저업소, 음식점 1월~4월 매출

- 군산의 관광산업을 좀 더 세부적으로 살펴보기 위하여 숙박업, 여행업, 레저산업, 음식점 등 대표적 관광산업 관련 업종을 선정하여 월별추이를 알아봄

[관광산업 관련업종 월별 매출 추이]



- 숙박업의 경우 기타 3개 업종에 비하여 매출규모가 상당히 낮은 것으로 추계됨
- 여행업의 경우 코로나19의 영향으로 1월에서 4월의 기간 동안 매출이 급감한 것으로 보임
- 반면 레저산업의 경우 같은 기간 소폭이지만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정책방향 시사점]

- 소비 침체 관광업종 선별 경쟁력 강화 지원
 - 1분기 코로나 19 사태 이후 관광객이 급감한 관광 업종을 중심으로 인프라 확충, 관광 마케팅 프로그램 지원 등 업종에 특화된 마케팅 지원 필요
 - 숙박, 음식업 등 1분기 코로나 19 사태 이후 관광객이 급감한 분야 우선 지원
- 레저업소의 중심의 관광객 유치 전략 강화
 - 1분기 경기 침체에도 불구하고 수영장, 골프장 등 군산시 소재 레저업소의 경우 타 부문대비 높은 회복력을 보이며 관광 매출이 상승한 것으로 나타남
 - 관련 방문객의 동선을 고려한 숙박, 음식, 레저용품 등의 관광산업 연계 마케팅 지원 등 추진
- 관광 목표와 성과의 계량화, 과학화 추진
 - 관광객 총 매출, 중점 육성 관광분야 산업 규모, GRDP 기여 수준 등 계량적 목표와 지표의 대외 활용 확대
 - 2분기 문화도시 공모 사업 등 향후 중앙정부 지원 확대를 위해 계량 성과 중심의 관광 목표 체계 구축 필요

○ 지역 내 문화공간 빅데이터 분석 사례: 시카고 아트
인스티튜트(The Art Institute of Chicago)

- 박물관 관람객 이동 패턴 및 관심 전시품 분석 등을 위해
유동인구 빅데이터 활용('17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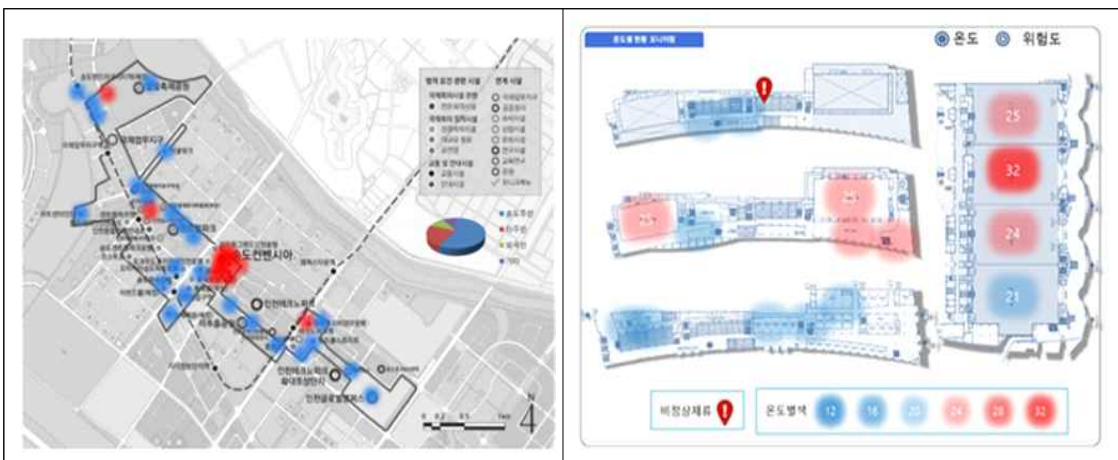
[The Art Institute of Chicago 관람객 패턴 분석 사례]



○ 고객 편의형 문화공간 서비스 제공 사례: 송도 컨벤시아

- 국내 송도 컨벤시아의 경우, 관람객에 대한 이용 동의를
받고, IoT 스캐너를 기반으로 전시관 내 각종 정보서비스
제공(편의시설 안내, 혼잡정보 제공, 화재 대피 등)
- 관람객(유동인구) 이용 패턴에 대한 분석을 통해 모바일
앱 기반의 고객 맞춤형 사후관리에도 활용

[송도 컨벤시아 IoT 모니터링 및 고객 공간정보 서비스 사례]



시민이 함께하는
자립도시 **포산**